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8월 16일)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화엄사 '화엄석경' 서울 나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9월 13일 특별전 '화장, 지리사 대화엄사'를 개막했다. 전시회에서는 '화엄십찰'로서 화엄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보들이 공개됐다. 특히 1만4000여 점이 넘는 조각편으로 전해오고 있는 '화엄석경(보물)'은 화엄사가 오래전부터 화엄사상을 선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보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화엄사의 '화엄석경'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성금 1억원

조계종, 9월18일 적십자 통해
생계 · 의료 · 정착 지원 예정

조계종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성금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 중인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의 생계 및 정착 지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강당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특별기여자들은 그동안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로,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고, 최근 우리 정부가 주도한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함에도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유로 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인류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인도적으로 선도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책임"이라며 "작은 성의이지만 인류 보편적 인류애 실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을 위해 특별히 기여하신 391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을 대한민국의 멋진 작전을 통해 완벽하게 국내로 데려왔다"며 "이것이 단순히 특별기여자를 대한민국의 품에 안아서 정착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원행 스님의 말씀처럼 인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고통 받는 피부 종교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한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작은 도움이라고 하셨지만 엄청나게 큰 도움으로, 특별기여자를 위한 기부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십자사는 그 도움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기여자들이 한국에 사는 데 전혀 문제 없게 적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에도 추석 자비 나눔 풍성

코로나19 장기화에 예년과 다른 풍경

현장 나눔 행사 축소된 반면
후원기금 · 물품 전달식 확대
종정 진제 스님 성금 전달도
사찰들 지역사회 회향 눈길
복지관은 비대면나눔 '활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불교계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소외이웃을 보듬는 다양한 나눔행사들을 지속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추석은 예년과 다른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불교계 복지관들이 지역사회 내 양로원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서 전개했던 송편 빚기 행사와 쪽방촌 방문 나눔 등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물품 지원과 나눔기금 전달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복지관들 역시 나눔행보를 축소하기보다, 코로나 방역물품을 포함한 선물세트나 명절음식 키트 등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 시국에 적합한 형태로 자비 나눔을 지속해 훈훈함을 더한다.

추석을 앞둔 불교계 나눔행보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의 자비나눔 성금전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진제 스님은 9월 12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매년 명절을 앞둔 시기 자비 행보를 이어왔지만, 직접 시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양 낙산사(주지 금곡)와 무산복지재단(이사장 금곡)도 9월 13일 양양군청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무산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김지훈)도 9월 13~17일 소외어르신을 위한 '한가위 행복나눔' 행사를 통해, 부침가루와 식혜, 쌀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어르신 463명에 전달했다.

속초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은 9월 15일 산하기관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묘근)에서 '제40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400세대를 위한 쌀과 과일, 농협상품권 등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설악동번영회에도 후원금 750만 원을 전달해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9월 1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어려울수록 이웃과 함께-2021년 한가위 마음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수와 김, 햇반 등 간편식 세트 500개가 종로구청을 통해 지역 소외이웃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됐다.

불교계 복지관들의 명절나눔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코로나 감염예방을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가운데, 소외이웃을 보듬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3일 지역 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과를 전달하고 전통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화한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비대면으로나마 명절 분위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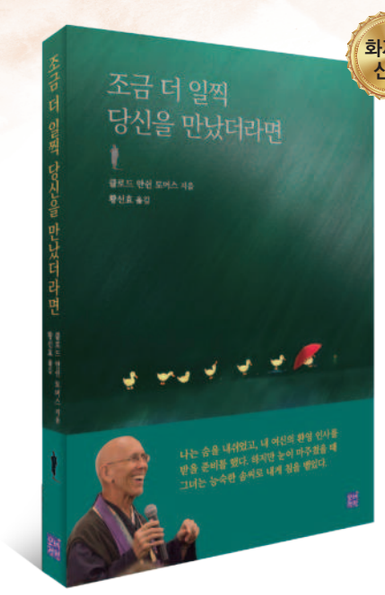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혜철)은 '풍성한 한가위, 달~달~한 안양' 행사를 통해 추석 덕담 · 소원 손편지 및 동영상 공모전을 비롯해, 안부동영상 강영, 건강지킴이 키트와 송편세트 나눔에 나섰다. 물품 전달을 제외한 전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명절에 더욱 외로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랬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정서지원 사업 '기억튼튼 워크북과 함께하는 즐기로운 추석나기'를 실시했다. 옥수복지관은 "워크북은 추석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돼 치매예방은 물론,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추석 명절에도 외로울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주 쉽니다.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
성전
佛敎聖典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 권에 담겨있습니다.
동국역경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정원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한국불교 살리는 30년 노하우, 무료 회향”

안심정사, 안심불교학술원 개원

9월 13일 간담회서 첫 공개
30년 사찰경영 성공노하우
“불교 미래 위해 전격 공유”
사찰 · 개인 누구나 신청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심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회향의 법석입니다. 안심정사가 맨땅에서 지금의 위상을 가지기까지의 30년 성공 노하우를 응집하고 체계화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0년 세월동안 포교 분야에서 경이로운 성과를 기록한 안심정사(회주 법안)가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할 사찰들을 위해 핵심 노하우를 회향한다. 안심정사는 논산 시골마을 포교도량에서 시작해 서울 중심부인 강남 한복판 등 전국 주요도시 6개 도량으로 성장시켰고, 신도세대 1가구로 시작해 3만 세대로 확산시킨 포교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30년 포교현장에서 안심정사의 성장 주역으로 활동해 온 법안 스님은 “코로나사태로 크게 위축된 한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년간 응집된 포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바로 안심정사 교육도량인 서울 안심불교학술원을 통해서다.

법안 스님은 9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심불교학술원의 취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최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심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가 살아남는 법을 공유하는 토대”로서 종단을 넘어 스님과 전법사, 일반불자들과 비불자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불교교육도량으로 포문을 연다.

안심불교학술원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불교 중흥이다. 그렇기에 모든 교육은 안심정사의 지원 하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무상교육임에도 퀄리티는 최고 수준이다. 금강대 前 총장 정병조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를 석좌교수로 위촉한 가운데, 한국불교 현장에서 남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각 분야 지식인들이 운영위원회와 교학위원회를 맡아 운영한다. 부설기관으로 불교 지도자 네트워크인 안심불교포럼도 동시 운영된다.

안심불교포럼은 고려대 前 총장 이기수 박사를 이사장으로, 백도웅 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목사, 남영진 KBS 이사장(前 한국기자협회장),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선경 고려대 의대교수, 김소연 피씨엘 주식회사 사장 등을 주축으로 한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연구위원으로 안심불교학술원 소속 20명 교수진이 겸직으로 참여한다.

안심불교학술원 교학위원회에는 사무총장으로 홍승기 동국대 명예교수(前 BBS사장), 기획처장에 범천 법사(인도 다람살라 티벳불교 IBD 과정 졸업), 교학처장에 청운 스님(인도 델리대 철학박사), 대외협력처장에 이현정 불교커뮤니케이션 대표(前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을 의장으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원장을 맡는다. 실무진으로 안심불교학술원 부원장에 연수 스님, 감사에 안심정사 주지 혜신 법사, 사무처장에 인정 스님이 선임됐다.

홍승기 사무총장은 “신도 감소를 넘어 스님이 없다는 것은 종단을 떠나 한국불교의 진짜 위기가 도래했음을 방증한다”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이 사찰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사찰을 사찰로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확신을 가지면서 안심불교학술원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국을 강타한 후, 안심정사에는 더 이상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전국 일부 스님들의 인수요청이 잇따랐다. 사찰 수에 비해 스님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코로나 사태가 운영상 어려움을 가속화시킨 셈이다.

법안 스님은 전국 6개 도량을 통해 직접 포교현장을 마주하면서, 한국불교가 직면한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 유지가 힘든 사찰들이 사찰이 아닌 공간으로 변질되는 위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한국불교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 바로 ‘안심불교학술원’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안심불교학술원은 기존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교육기관으로 구성됐다. 단적으로 실제 포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수에 방점을 둔다. 스님과 전법사, 재가자의 구분도 크지 않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원력을 가진 누구나 무료로 안심정사 30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사위기에 놓인 사찰이 사찰로서 기능할 수 있고, 해당 사찰을 중심으로 불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안심불교학술원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다만 스님은 사찰 운영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도 그 핵심은 교학에 있음을 강조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교학이며, 두 번째가 설법, 세 번째가 의식, 네 번째가 봉사 등 대사회실천이라는 것이다.

결국 안심불교학술원의 토대는 사찰 경영의 실질적인 노하우에 대한 공유지만, 나아가 교학과 의식, 실천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정병조 석좌교수를 비롯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강사진을 구축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 스님은 “안심불교학술원은 사찰이 사찰답게 유지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평생 동안 불교의 정수를 배우고 익히는 장기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는 중”이라며 “사부대중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는 만큼 스님과 전법사, 불자와 비불교인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적법성 인정받은 법화종 총무원, 정상화 착수

9월 8일 임원 회의서 조치 논의
9월 13일 소송 결과 · 현안 공고
“거암 스님 · 비대위의 종무행위 일체무효…종도들 피해 최소화”
종단협 종단 대표자 변경 추진

법원 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은 법화종 총무원이 그간 종단의 혼란을 종식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식됨을 알리고, 종단 혼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고시 · 법제위원회 등을 재가동하고 법계고시 회복 및 승려분한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그동안의 종무행정 왜곡 및 공백으로 인한 종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9월 8일 임원회의를 열고 종단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대표자 변경의 건, (사)대한불교법화종 이사장 변경 확인의 건, 인사위원회와 고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한 절차의 건, 승려분한신고 및 법계고시 시행 등 그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종단 본연의 종무행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법화종 총무원은 이 과정에서 종도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3일 전국의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을 포함한 전 종도들에게 ‘종단 현황(법원 결정 등) 안내 및 종무 협조의 건’ 공문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입장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공문을 통해 그간 진행됐던 4건의 소송 취지와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2021년 1월 무효화된 前 총무원장 당선인 거암 스님 체제의 각종 임면처분 등의 종무행정과 올 3월 조직된 불법해종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행한 종무행정은 일체 무효”라며 “이로 인해 불이익 받는 종도들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실시해 반듯한 법석 위에 불국토를 장엄하는 종단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종도님들의 재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부패와 부당한 징계 등으로 승려 분한이 미재돼 있거나 멸실된 분들의 회복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종 모략과 음해를 이어가는 해종 세력에 대응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유나 사암 이탈 가속으로 폐쇄 혹은 관리를 받지 못한 지역 교구가 활성화 ·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재)선학원, 법진 스님 이사장 재선출 추진?

9월 10일 선학원 이사회서
이사장후보 법진스님 추천
9월 28일 차기로 이월키로
선미모, 결사반대 입장천명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재선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로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이 후보로 추천된 데 따른 것이다.

내부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은 차기로 이월됐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학원이 또 성범죄자 이사장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법진 스님은 이사장 소임을 맡은 당시,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죄가 확정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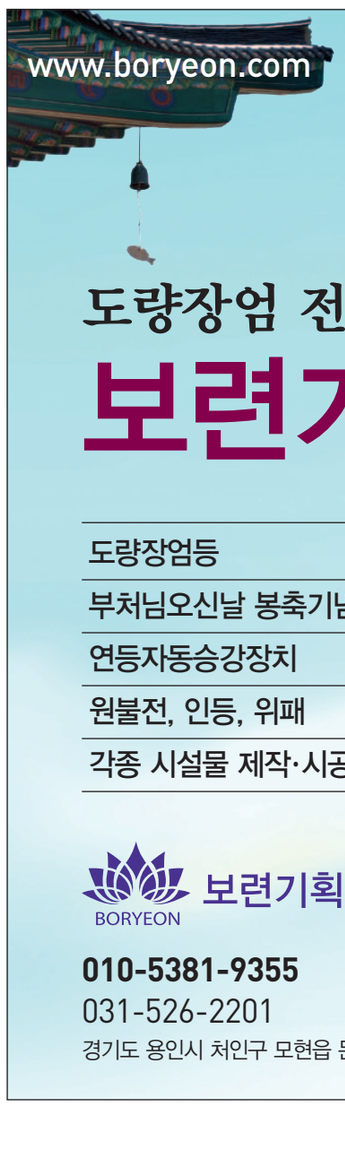
이날 이사회는 분원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포함해 10여 건의 안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진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기타안건으로 ‘이사장 선출의 건’이 논의됐다. 이사장 선출의 건은 前 이사장 송운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이후, 총무이사 지광 스님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됨에 따른 것이다.

선학원의 다수 이사 스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자, 한 이사 스님이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일부 이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법진 스님 외에는 이사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재선출에 힘을 싣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이사장 선출의 건은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차기이사회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인 ‘이사장 선출의 건’이 기타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출의 건을 9월 28일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이사 스님은 “9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혹여 법진 스님 외에 다른 이사가 후보로 나서겠다고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후보가 나오더라도 현재 이사 구성을 살펴볼 때 법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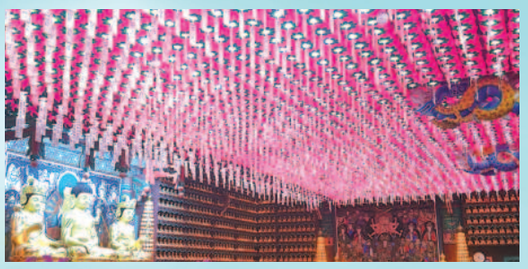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학원미래포럼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만약 또 다시 밀실에서 ‘최종진(법진) 4선 이사장 재선출’을 획책한다면 우리 창건주 · 분원장들은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건학이념 구현해 동국 발전 매진”

동국대 캠퍼스 · 의료원, 건학위 출범 잇달아

서울캠 9월14일 첫 건학위 구성
경주캠 · 의료원도 건학위 출범
신행 인재양성 기금 등 5개분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기관들이 단위별 건학위원회를 잇달아 출범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9월 14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자승) 출범 이후 법인 산하기관 중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처음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원회)는 증명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장 자승 스님을, 고문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추대했다. 건학위원장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부위원장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이 맡았다. 건학위원으로는 정각원장 묘주 스님을 비롯해 정책위원(16명), 대학장(4명)이 참여한다. 또한 △신행 · 포교 △인재양성 △지속성장 △기금 · 재정 △글로벌 등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분야별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상임위원 돈관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교수는 교육과 연구, 교직원은 교육행정, 학생은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 동국대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에게 동국대와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한국불교의 위기는 곧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동국대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건학위원회 출범이 불교계와 동국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9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건학이념 구현 사업을 진행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 을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는 △증명 △고문 △건학위원장 △건학위원회△분과위원회(신행/포교, 인재 양성, 지속 성장, 기금/재정, 글로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됐다. 증명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이, 고문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추대했다.

경주캠퍼스 건학위원장을 맡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곧 건학이념을 수행하고 앞으로의 불교 천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든 구성원이 불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을 가지고 건학정신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용맹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의료원(원장 채석래)도 10월 15일 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동국발전 건학이념을 구현할 법인 산하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의료원 건학위원회는 신행, 의료, 대학, 기금 등 4개 분과로 나눠 의료 협력 사업을 확대해 환자와 교직원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건학위원회 상임최고위원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수처작주의 자세로 자비의 의술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으며, 법인 이사장 성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금률, 육식 거부 근거”

대행선연구원, 9월 11일 계절발표회 개최

안성두, 슈미트하우젠 저서분석
대승불교 육식거부 근거들 살펴
윤종갑, 대행 선사 ‘주인공’ 고찰



‘모든 존재는 고통과 죽음을 싫어하기에 살생을 해서는 안된다’ 는 황금률이 대승불교의 육식 거부의 근본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두 서울대 교수는 9월 1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 제10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대승불교에서 육식의 거부와 그 근거’ 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안 교수의 논문은 랍버트 슈미트하우젠의 최근 발간 저서 〈인도불교에서 육식과 채식주의〉를 분석하고, 대승경전의 기록에서 육식 포기의 근거를 찾았다.

그에 따르면 베다의 희생제의를 반대해 “살생은 잔인함의 표현”이고 “동물에 대한 보살핌과 공감에 의해 살생을 멀리해야 한다”는 초기불교의 아힘사 원칙이 도입됐다. 아힘사에서의 공감은 ‘모든 존재들이 자신처럼 고통과 죽음을 싫어한다’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불살생을 촉발시키는 ‘황금률’ 의 형태로 나타났다.

“내가 그렇듯이 그들도 그렇다. 그 자신을 비교로 하여 그는 살생하거나 살생하도록 시켜서는 안된다”와 같은 〈숫타니파타〉의 게송이 불살생의 ‘황금률’ 을 보여준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주목되는 것은 육식의 포기가 붓다 자신에 의해 확정됐다는 〈대승열반경〉의 주장”이라며 “육식 포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경전 편찬자가 알던 모르던 간에, 붓다의 정신적 후계자들은 이제부터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종갑 동아대 교수는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불교 공사상의 전개: 붓다의 제일의공, 용수의 무자성 공, 그리고 대행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를 통해 붓다와 용수, 대행 선사의 공사상을 비교 · 분석하고, 대행 선사의 ‘주인공(主人空)’ 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공사상”이라고 주장했다.

어려운 수행적 과제였던 공사상을 ‘주인공’ 이라는 개념을 빌려 공을 새롭게 해석해 대중적 · 실천적 공사상을 설한 선지식이 대행 선사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대행 선사는 붓다의 무아설, 용수의 무자성 공을 중국 선불교와 중도적으로 상즉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주인공 사상을 정립했다”면서 “붓다의 공사상은 용수와 대행 선사에 의해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지행합일의 공사상으로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 본격화

민추본 · 고성군, 9월14일 협약
금강산권 불교 문화재 재복원
“남북 평화 협력 중장기 토대”
민추본 강원 지역본부 발대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고성군은 9월 14일 고성군청에서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강산 권역의 불교 문화재를 잇는 옛 순례길 복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옛 수행자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잊혀진 옛길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순례길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와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9월 14일 고성군청에서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례길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고성 건봉사를 시작으로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과 北유점사와 신계사 등 금강산 권역의 사찰과 사찰을 이었던 순례길은 과거 사명대사 등 수많은 수행자들의 발자취가 남겨졌지만, 남북 분단 이후 민통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잊혀진 옛 길이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봉사와 민통선 내 폐사지를 시작으로 순례길을 조사 · 복원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순례길 뿐 아니라 민통선 내 폐사지를 조사, 발굴 및 복원하고 나아가 금강산권 불교문화재 보수복원 등 남북 협력 사업까지 지원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추본과 고성군의 협약으로 진행될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 은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현실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고성 건봉사를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관계가 해소될 경우 유점사와 신계사 등 북측 사찰로 이어지는 순례길로 확대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은 협약식에서 “분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온 고성군민들의 아픔이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되면서 치유되는가 했지만, 다시금 단절의 슬픔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력하나마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멀지 않은 시기 고성에서 시작된 길이 북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염원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추본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고성 건봉사(주지 현담)에서 강원지역본부 출범식도 진행했다. 강원본부는 부산본부, 인천본부에 이은 세 번째 지역본부로, 현담 스님을 초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고성=송지희 기자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 발표

중앙신도회, 9월 13일
박수빈불자 대상 수상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최한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에 박수빈(문수행/영평사) 불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박수빈 불자는 불교성전 ‘제3장 보살의 길’ 중,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을 연필로 필사했다. 붓이나 펜보다 더 정교하게 강약 조절까지 표현한 작품 속에서 손글씨의 정성은 물론 엄청난 신심이 느껴진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진미(보경화/도림사) 불자로 원고지 한 칸 한 칸 개성이 돋보이는 필체를 선보이며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동심이 느껴지는 어린이 불자의 작품부터 서툰 한글 실력이지만 정성 가득한 재외동포 불자의 작품까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손글씨 작품들이 소개됐다.

한편, 이번 손글씨 공모전은 7월 12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102개의 손글씨 작품이 접수됐으며 9월 13일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24명의 작품이 입상했다. 노덕현 기자

Since 1972 80쇄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권에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는 부처님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드립니다.

법보시〈불교성전〉
정가 ~~42,600원~~ → 39,000원
법정스님의 〈불교성전〉이 50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읽기 쉬워진 〈불교성전〉을 법보시하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의 새로운 기획!
교계 처음 제작, 〈야전 불교성전〉 & 읽으며 따라쓰는 〈불교경전 필사본〉



〈불교성전 필사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제작
190×260mm
상권 288쪽, 하권 360쪽
각 권 값 15,000원
세 트 값 30,000원

〈야전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지음
125×187mm
824쪽(양장본)
값 24,000원

법보시 불교경전 세트


SET1 〈불교성전 + 상월선원〉
정가 ~~58,600원~~ → 53,400원
〈불교성전〉과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의 희망을 말하는 〈상월선원 – 천막결사 90일 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T2 〈불교성전 + 선종사부록〉
정가 ~~60,600원~~ → 55,200원
〈불교성전〉과 참선이 무엇인지,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행자와 일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혜거 스님의 〈선종사부록〉을 담았습니다.


SET3 〈불교성전 + 불교입문〉
정가 ~~64,600원~~ → 58,800원
〈불교성전〉과 동국대 불교대학이 불교 입문자들을 위해 새롭게 펴낸 불교학 정통교과서 〈불교입문〉을 담았습니다.

세트구성 ① 〈불교성전〉과 다른 추천도서로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② 〈불교성전〉과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가능합니다. ex)염주, 반지, 공진단, 학교기념품 등 ③ 선물하시는 분의 인사말 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 판 문 화 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주문전화 02-2264-0142 주문팩스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한걸음 더 대중과 가까워진 '화엄문화축제'

대화엄사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 화엄사 10월 1~3일

걷기대회·괘불재·음악제 등 '어머니의 길' 명명식 등 개최 상월선원 천리순례단 동참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리산 대화엄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를 개최한다. 사진은 6월에 열린 '2021 화엄사 세계요가의 날 기념 요가 축제' 모습.

지리산 대화엄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를 개최한다. 한 걸음 더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화엄문화축제'로 행사명을 바꿔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첫째 날 걷기대회, 둘째 날 괘불재, 셋째 날 화엄음악회로 진행하는 야단법석으로 승가와 재가, 군민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10여 년 동안 보수불사를 마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이 9월 29일 준공 회향식을 마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뜻깊은 날이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첫째 날 걷기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화엄사를 출발해 어머니의 길, 연기암, 금정암, 화엄사 각황전으로 돌아온다.

걷기대회는 그동안 화엄사 홈페이지와 구례군체육대회,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포교사단,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참가자들이 우선순위로 참여하며 참여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화엄사는 산내 암자 연기암까지 왕복 2km 구간을 '화엄숲, 어머니의 길'로 지정하고 걷기 대회 당일 대회에 앞서 걷기대회 참가자를 비롯한 사부대중과 함께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머니의 길'은 사사자삼층석탑에 담긴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과 '구례(求禮)'라는 지명에 담긴 의미에서 비롯됐다. 이날 명명식에는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과 어머니가 참석해 명명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들은 천년의 화엄숲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며, 화엄사에서 준비한 경품도 함께 받아갈 수 있다.

△둘째 날에 열리는 괘불재에서는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이 범패의식을 구현한다.

화엄사 괘불을 모시고 화엄사가 지닌 화엄법계의 이치를 장엄하는 괘불재는 이번 화엄문화축제의 의미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날에 열리는 음악제에서는 화엄사가 그동안 이어온 영성음악회의 명성을 기조로 클래식, 쎄미클래식, 재즈, 퓨전음악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사흘간의 화엄문화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음악제가 열리는 이날은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순례 3일차 일정으로 화엄사를 찾는 날이다. 상월선원 삼보사찰 순례단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증흥 원력을 잇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순례단의 참여로 화엄문화축제의 의미를 한 층 더 높이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음악제에 참여하게 되는 상월선원 삼보사찰 순례단은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18일 동안 423km의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엄문화축제는 3월에 열린 사진 콘테스트 제1회 홍매화·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천년의 도량에서 매화와 노닐다'와 6월에 열린 '2021 화엄사 세계요가의 날 기념 요가 축제', 8월에 열린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제를 잇는 화엄사의 문화축제로 오는 12월에는 지리산 노고단과 둘레길 걷기와 산신제를 마련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마당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화엄문화축제 기간 동안 화엄문화축제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로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화엄사 061-783-7600)

생명나눔부산, 제13회 장기기증 캠페인

10월 2일, 초읍어린이대공원 일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0월 2일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제13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캠페인 모습.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이하 생명나눔부산)는 10월 2일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제13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은 개막식과 거리홍보를 위한 걷기대회,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후 2시에 진행하며 본부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과 휠체어 전달식이 이어진다. 휠체어는 부산보훈병원, 성모병원 등 부산지역 병원에서 추천한 환자를 선정해 전달하고 있으며, 생명나눔부산은 현재 환자를 위한 휠체어 후원도 받고 있다.

부산생명나눔은 "현재 6개의 휠체어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휠체어를 전달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거리홍보캠페인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2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자원봉사자가 참가하고 오전 11시에 출발하며, 개막식 동참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오후 2시 30분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출발해 공원 내 사명호국광장까지 걸으며 홍보지를 배포하고 장기기증의 가치를 알린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체험부스는 잔디머리인형 만들기와 생명나눔 캐릭터 타투하기, 손소독제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며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고 이어 갈 것이다. 많은 응원과 격려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추석나눔

온누리 상품권 등 7천만 원 상당 후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이 추석을 맞아 9월 14일 부산진구청 및 동구 범일동 지역을 방문해 4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3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성금전달을 위해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 거주하는 40세대를 직접 방문해 격려했으며, 한 세대 당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했다.

백미는 부산진구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들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참석했다. 백미는 총 10kg 860포이며 부산진구 내 주민센터가 홀몸어르신, 저소득 세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주식회사 YC-TEC을 이끄는 불자기업인이며 자비나눔 행보를 30년 이상 이어왔다. 현재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불자 기업인들의 친목 및 수행나눔을 이끌고 있다. 명절을 맞아 전달하는 자비나눔 외 장학금지원, 어려운 환자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사회복지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정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이 9월 14일 부산진구청 및 동구 범일동 지역을 방문해 7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백미를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부산정사, 개원 7주년 기념법회

9월 12일 부산정사 법당서 개최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이 9월 12일 부산정사 법당에서 '신뇨엔부산 봉안법요 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신뇨엔 부산정사 영준 국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기념법회는 예불문 독경과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회고 영상 시청,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국제부장 인사말, 개조 이토 신죠의 영상 법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국제부장은 "부산정사 개원 7주년을 먼저 축하하고 아울러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힘들어 할 때,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의지처인 부산정사의 개원 7주년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신뇨(眞如)의 가르침으로 개조, 영조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타의 마음과 행으로 실천해가는 곳에서 자신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회에도 그 기쁨의 수레바퀴를 넓혀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부산 가야동, 연산동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가정법회를 시작으로 모임 및 수행을 이어왔다. 신뇨엔은 장학사업을 펼쳐 지역인재불사에 앞장섰으며 무료급식 후원 등 이타행을 실천했다. 아울러 부산불교연합회에 등록해 한국불교와 교류하며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사암聯, 코로나방역물품지원 전달식

위생장갑 및 작업복 등 1000만 원 상당

대한불교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이하 울산사암연합회)가 9월 16일 백양사 경내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울산사암연합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물품은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작업복, 마스크 등이다.

전달식에는 울산사암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외 임원 스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강학봉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산옹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이다. 연합회 스님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함께 마련했으며 이렇게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가 9월 16일 백양사 경내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편, 울산종단연합회는 전달식에 이어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태화문화체험관은 전통사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백양사 일대에 조성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국판변형/184쪽/값 12,000원

선어록의 백미·어록의 왕!
임제어록 역주
한국 선종의 원류를 만나다! 거침없는 말과 파격적인 언어로 선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임제 의현의 선풍과 종지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임제의현 저/강승욱 역/신국판/512쪽/값 27,000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리둥절 깨달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궁극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한 젊은이가 붓다의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며 자유인이 되는 과정을 수필처럼 그려냈다.
고정해 지음/국판변형/20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해인동문장학회 6대 이사장에 일면 스님

9월 14일 제 30차 이사회서 연임결정

2021년 장학승35명 선발해 총 3000만 원 장학금 전달

신규이사 3명 선임도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면 스님은 해인동문장학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해인승가대학 스님과 졸업 스님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학승들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제6대 이사장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선임됐다. 일면 스님은 해인동문장학회 초대 이사장에 이어 5대 이사장을 맡아 장학사업을 이어왔다.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는 9월 14일 오후 3시 법인 사무실에서 '2021년 제3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이사장 인사말, 장학회 보고안건, 심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로 선임된 이사장 일면 스님은 "코로나19로 사중과 모든 사람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후배 스님들을 위해 참석하신 임원 스님들 모두 대단히 고맙다"며 "제가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다. 장학회 임원 스님들 잘 모시고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인동문장학회는 2005년 9월 출범 이후 해인사승가대학 재학승과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타 대학 재학승을 대상으로 장학승을 선발해 2020년까지 5억 5800만 원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회 출범부터 애정을 쏟은 일면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승단이 처한 상황은 결국 선배 스님들이 후학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십시일반 후학들을 위해 후원금을 내주신 스님들을 비롯해, 학업에 열중해 준 스님들 모두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해인동문 장학과 불교발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장학승 선발의 건도 상정돼 총 35명(해인사승가대학 재학승 10명,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타 대학 재학승 25명)에게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해인동문장학회는 장학금 수혜자에게 선발 결과를 안내하고 오는 11월 열릴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9월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 가운데 5명이 연임(이사 4명, 감사 1명), 3명이 새로 취임(이사 3명) 의결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팔공산 제2석굴암 '인재불사' 나서



연등장학재단은 9월 12일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6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불교 미래를 밝히는 인재불사가 팔공산 제2석굴암에서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9월 12일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6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설립 17년을 맞이한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자리이타 정신으로 하늘을 떠받칠 기둥과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열심히 소양을 닦고 미래사회 동량이 돼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마음은 그리는 대로 이루워진다.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김성규 재단법인 통섭불교원장은 "장학금 수여는 부처님 동체대비사상을 실현하는 방편"이라며 "법등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전달식에서는 노동일 前 경북대 총장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송광사, 위기가정에 추석선물 전달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는 추석을 앞두고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박정숙)와 함께 9월 16일 순천시 관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송편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총 71세대 81명 아동에게 전달됐다. 또 아동 3명에게는 후원금 잔액이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대승사 주지 보리 스님, 박정숙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자공 스님은 "차별없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둥근 달의 마음처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숙 센터장은 "후원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남동부지역 내 부모 학대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위탁가정아동지원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성 스님, 전북교구원장 재선출

9월10일 지방종회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나눔과 복지사업' 지속 천명 신도조직 · 봉사단결성 역점 전북 영산재 세계화도 추진



제19대 전북종무원장으로 추대된 진성 스님(사진 오른쪽)이 임명장을 받고 있다.

태고종 전북교구원 제19대 원장에 현 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전북교구 지방종회(의장 법전, 김제 용봉사 주지)는 9월 10일 제71차 지방종회를 열고 제19대 전북교구종무원장에 진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재임한 진성 스님은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 보존회의 활발한 활동 지원과 범패 · 작법의 개인 무형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화장엄의 무형문화재 지정도 함께 추진해왔다. 이날 전북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는 제18대 전북종무원장 재임 중 진성 스님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공로패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19대 종무원장에 다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19대 임기 중에는 18대에서 추진했던 나눔과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며 "특히 19대 임기 중에는 각 사찰의 조직 구성을 완료해 단위사찰 봉사단을 구성, 나눔과 복지사업에 적극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또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베트남 닥락성에서의 영산재 시연을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며, 전통사찰 보존사업에도 적극나서겠다"며 "종무원 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18대 종무원장 재임시 미진했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제19대 전북교구 교역직 임직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교역직 종무원에 부원장 연수 스님(완주 봉서사), 총무국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교무국장 법성 스님(익산 태봉사), 재무국장 지오 스님(익산 대인사), 문화국장 법진 스님(익산 태봉사), 사회국장 영전 스님(김제 관음선원) 등이 임명됐다. 또한 결원상태였던 직능직 종회의원에 김제 성덕사 도홍 스님이 선출됐다.

한편, 전북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 익산 태봉사)는 8월 20일 전북교구 종도에게 제19대 종무원장 선출을 공고했다. 이후 진성 스님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사, 월산 대종사 추모다례재 봉행



불국사는 9월 11일 무설전에서 월산 대종사 24주기 추모다례제를 개최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9월 11일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다진 성림당 월산 대종사 제24주기 추모다례재를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원로의원 지명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불교신문사장 현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로의원 지명 스님은 "보시와 자비로를 행하여 중생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불도를 이루는 길이다"고 월산대종사 어록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문도대표로 "엄중한 시기에 다례재에 참석한 고마움에 더욱 수행 정진하여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추모사에서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연보를 기초로 하여 월산 대종사의 삶을 총정리 했으나,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학술세미나에서 월산 대종사의 선을 중도선이라 밝히고 중도선을 대중에 공포한 것은 무엇보다 큰보람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다례재는 불국사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축원에 이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종사 영반, 추모사로 이어졌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죽비삼배 후 월산 대종사 생전 법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뚱이, 이 청정한 이 몸뚱이는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대중에게 전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22년 파승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0. 31**(일)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9월

국방부 군종특별교구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5

▶ 36회 예고
빈두사라왕이 파견한 특사일행이 웃자인에 온다. 특사 단장은 라다굽따 제관이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의 어머니 다르마왕비와 부인 아상디밋따의 편지를 전한다. 다르마왕비는 아쇼까에게 비가따쇼까 동생이 태어났음을 알린다.



담마팔, 데비 전생과 금생 말하다

아쇼까는 꼭두새벽에 눈을 떴다. 잠을 더 자고 싶었지만 신경이 곤두섰다. 높은 천정에서 자꾸만 무슨 소리가 났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도마뱀이었다. 도마뱀 세 마리가 천정에 붙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다. 하의만 갈아입은 아쇼까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푸른 새벽빛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새벽빛에 놀란 도마뱀들이 재빨리 창턱 너머로 도망쳤다. 아쇼까는 밤안개에 젖은 축축한 새벽공기를 들이마셨다.

저택 주위에는 호위군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정원 한쪽 빈터에서는 화톳불 연기가 피워 올랐다. 밤새 경계를 섰던 호위군사들이 젖은 몸을 말리는 중이었다. 아쇼까를 발견한 호위대장이 저택 2층으로 올라왔다.

"베디샤나가르 마을에는 오후에 가기로 돼 있지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전에 데바 저택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비켜 보시오."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창문에서 비켜서게 했다. 말을 타고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다. 아쇼까는 문득 데비가 아닌가 싶어 창문으로 다가갔다. 말을 타고 가는 여인은 데비가 틀림없었다. 데비는 곧 정원을 지나치더니 안개 저편으로 사라졌다. 아쇼까가 말했다.

"새벽에 데비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를 위해 산치 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일이오."

"베디샤나가르 사람들은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비라고 부릅니다."

아쇼까는 데비가 사라진 안개를 잠시 응시했다. 아쇼까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아쇼까가 말했다.

"대장, 군마를 준비하시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산치 동산이오. 담마팔 사문을 만나야겠소. 호위군사를 붙이시오."

"사문은 왜 만나시려고 합니까?"

"사문에게 데비가 어떤 여인인지 듣고 싶소."

호위대장은 즉시 2층에서 내려와 군마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자신과 행동을 함께할 호위군사 5명을 차출했다. 아쇼까는 군마의 말고삐를 건네받고는 바로 달렸다. 호위대장도 아쇼까를 뒤따랐다. 잠시 후 아쇼까와 호위대장, 호위군사 5명은 말발굽 소리만 남긴 채 짙은 안개 속에 섞여버렸다.

아쇼까는 어제저녁에 왔던 길을 기억하면서 달렸다. 호위대장이 바짝 뒤따르며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도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보다 베디샤나가르나 산치의 지리에 익숙했다. 누구라도 샛길로 빠지면 비슷비슷한 들판이나 구릉이 나와 방향을 잃기 일쑤였다.

아쇼까는 호위대장을 가끔씩 뒤돌아보면서 길을 잃지 않았다. 이윽고 안개 속에서 산치 동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어제 오후에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보았던 바로 그 동산이었다. 아쇼까는 손을 들어 뒤따라오는 호위대장과 군사들을 멈추게 했다. 호위대장이 아쇼까가 탄 군마 앞으로 와서 섰다. 아쇼까가 말했다.

"담마팔 사문이 있는지 모르겠소."

"소장이 사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오. 내가 절로 들어가겠소. 대장은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아쇼까는 호위대장이 절 문 밖까지만 오게 했다. 호위군사들의 군마가 절 경내로 들어와 소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어서였다. 아쇼까는 군마에서 내려 바로 절 경내로 들어갔다. 때마침 늙은 담마팔이 나와 아쇼까를 맞이했다.

"부왕님이시여,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어제 나는 사문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소. 그래서 또 찾아온 것이오."

"보잘것없는 소승을 또 찾아오시다니 뜻밖이옵니다."

담마팔은 아쇼까를 회랑처럼 생긴 길쭉한 베란다로 안내했다. 베란다에는 여남은 개의 나무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승려들이 앉아서 담소하거나 명상을 하는 그런 용도의 의자였다. 담마팔이 아쇼까에게 한가운데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부왕님이시여, 앉으십시오."

"사문도 가까이 앉으시오."

"안개가 걷히면 지평선이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문이시여, 나는 지평선을 보러 온 것이 아니오. 알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을 알고 싶은 것입니까?" "사문도 알고 싶고, 데비도 알고 싶소."

어린 사미가 탁자 위에 물이 담긴 토기 두 개를 놓고 갔다. 목이 말랐던 아쇼까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담마팔이 아쇼까가 물을 마시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말했다.

"소승은 사끼야족 끄샤뜨리야로 베디샤나가르 마을 태생입니다. 출가하여 데바 수장님의 부탁으로 줄곧 산치 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비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비는 어떤 여인이오?"

"부왕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 데비의 전생과 금생, 또는 후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저 안개가 걷히면 들판과 구릉, 강이 드러나듯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문이시여, 사문의 신분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데비에 대해 말해주시오."

"말하겠습니다. 부왕님이시여."

그제야 담마팔도 토기를 두 손으로 받들어 잡고 물을 아끼듯 조금씩 마셨다. 그러나 물이 아까워서 천천히 마시는 것은 아니었다. 물속에 살아 있는 벌레가 있는가 싶어 살피고 있었다. 사문이란 자신이 목마르다고 해서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살생해서는 안 되었다.

"데비님은 전생에 많은 보시를 하여 부호의 딸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금생에도 사문이건 마을 사람들이건 가리지 않고 데바 부인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시하고 있습니다. 전생과 금생의 복덕으로 장차 데비의 아들딸은 존귀한 귀인이 될 것입니다."

"존귀한 귀인이란 어떤 사람이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오?"

"왕의 길을 가면 수승한 왕이 되고 담마의 길을 가면 수승한 사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사문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데비야말로 보석 같은 여인이오."

"부왕님이시여, 그렇습니다."

"간밤에 품었던 의문이 풀렸소. 사문과 데비를 알았으니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없소."

아쇼까는 바로 일어나 절 문을 나섰다. 절의 법당을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쇼까는 아직 법당 안의 장식이 낯설었다.

삘빨라나무와 수레바퀴가 조각된 조형물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보는 것조차 어색했다. 조형물들이 데바의 조상 붓다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아쇼까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 없었다. 호위대장이 군마를 끌고 다가왔다.

"사문을 보았습니까?"

"사문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소. 사람을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소."

호위대장은 아쇼까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헷갈렸다. 담마팔인지 데비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데비는 보석 같은 여인이오. 담마팔 사문에게 확인할 수 있었소."



"그럴 것 같습니다. 베디샤나가르 뿐만 아니라 베디샤 사람들이 여신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데바와 데비를 궁궐로 초대하겠소."

아쇼까는 말고삐를 힘껏 잡아당겼다. 자욱했던 안개는 어느 새 지평선 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호위대장이 아쇼까 앞에서 선도했다. 군마의 말굽소리에 들판에 내려앉아 먹이를 쪼고 있던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기도를 끝낸 데비가 법당에서 나오자 담마팔이 다가와 말했다.

"방금 부왕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사문이시여, 오늘 새벽 기도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순일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왕님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 기도도 그러합니다."

데비는 담마팔의 말을 믿었다. 아쇼까가 절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데비는 기도할 때 머릿속을 스쳤던 사람이 아쇼까였다고 자각했다. 자신의 조상이자 위대한 스승 붓다였다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을 리 없었던 것이다. 데비가 절 문을 나서려 하자, 담마팔이 말했다.

"데비님,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왕님께 데비님 얘기를 했습니다."

"호호호."

데비가 장난스럽게 소리 내어 웃었다. 자신의 얘기가 아쇼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투였다. 그러나 담마팔의 표정은 너무 진지해서 그의 머리가 무겁게 보일 정도였다.

"데비님, 부왕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어 데비님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문께서 저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시프라 강 강물을 들여다보듯 알고 있습니다."

"사문이시여, 저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드려야지요. 데비님은 전생에 수많은 보시를 하여 금생에 부호의 딸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금생에도 음식공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데비님의 아들과 딸이 태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부왕님께도…"

"그렇습니다. 소승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차마 부왕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데비님, 죄송합니다. 이제 두 분만 알고 계시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디샤데비는 담마팔의 이야기를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였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담마팔 사문에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담마팔은 다소 홀가분해했지만 반대로 데비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 때문인지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담마팔이 비로소 생각난 듯 마저 한 마디 했다.

"부왕님께서 데바 수장님과 데비님을 초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문이시여! 이 무슨 일입니까?"

"세상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초대받거든 응하십시오."

데비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원에 베디샤나가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집사 타리쉬가 하인들을 데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쇼까가 서서 말할 연단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연단 앞면은 생화 아치가 화려했다. 정원 양쪽에 두 줄의 긴 식탁에는 짜빠티와 짜이, 그리고 망고, 바나나, 포도, 석류 등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이윽고 아쇼까가 베디샤데바의 안내를 받으며 연단 위로 올라섰다. 아반띠국을 통치할 부왕 아쇼까였다. 선봉대장과 호위대장이 생화 아치 좌우에서 칼을 치켜들며 예를 갖추자, 베디샤나가르 마을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듯 아쇼까에게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계속〉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 생명살림 법회(봉은사)'를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합니다.

◈ 내 용 : 사무량심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 방송일시 : – TV : 한가위특집
9월 20일(월) 12:30 / 9월 21일(화) 19:30 / 9월 22일(수) 6:30
– 라디오 : 10월 3일(일) 10:00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⑱ 전등법맥에 대한 인식과 역할



▶ 한줄 요약

고려 후기부터 한국 선법에서는 전등 법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배경은 송 대에 출현한 수많은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수입과 함께 해동선법의 법맥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비롯되었다.

선종 전등법맥에 대한 시대적 자각

고려 후기부터 한국 선법에서는 전등 법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배경은 송대에 출현한 수많은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수입과 함께 해동선법의 법맥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이 〈선문염송〉에서 송대의 전등사서와 공안집(公案集), 선어록(禪語錄) 등에서 공안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이들 전등법맥에 대한 인식이 한국선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찍이 중국선종에서도 선종의 형성과 그 전승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1. 전등계보의 성립 조건

전등(傳燈)이라는 용어는 불조의 혜명을 등불에 비유한 말이다. 곧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는 붓다의 정법안장(正法眼藏)으로, 그 범위는 멀리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마하가섭을 통하여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이르고, 나아가서 중국선에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의 기관(機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이를테면 중국선종에서는 유교사회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종문의 계승이라는 사명감을 고취하였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식은 전등을 강조하는 전법계보를 통한 법통설의 확립, 전법게송의 확립, 인가증명의 확립 등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물증으로서 가사(袈裟)와 발우(鉢盂)의 전승을 강조하는 전통도 형성되었다. 가사를 통하여 정통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의부법설(傳衣付法說)은 8세기 초반 조계 혜능(曹溪慧能)의 문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인데, 이로부터 발우 및 주장자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하택 신회(荷澤神會)가 주장했던 가사의 부촉설은 남종의 전등법통설의 주장과 더불어 정법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신물(信物)로 고안된 것이지만, 신회 이후의 중국 선종에서는 인가증명의 신물로 새로운 전통이 확립되었다. 특히 무주(無住)의 보당종(保唐宗)에서는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를 편집하여 자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색적인 전의부법의 전등설을 주장하였으며, 〈조계대사전(曹溪大師傳)〉 및 돈황본 〈육조단경(六祖壇經)〉, 〈보림전(寶林傳)〉 등에 계승되어 선종의 전법상승 및 인가증명의 상징으로 정착되었다. 등불의 전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비롯되었는데, 직접 법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법화문구(法華文句)〉에 보이며, 선종에서 정법안장의 전승이라는 의미로 활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속고승전(續高僧傳)〉,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조정사원(祖庭事苑)〉 등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전등은 정법안장을 전승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선 전등계보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는 수행과 깨침과 인가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수행 · 깨침 · 인가 · 전법의 전통은 특히 교학불교가 발전해가던 당시 중국불교계에서 선법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교학불교와는 다른 차별화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종의 경우 자파가 교학의 측면과는 전혀 다른 측면의 특징을 내세움으로써 선법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안장의 핵심을 그대로 전승했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다름이 아니라 전등의 계보에 착안한 원인이 되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의 법문은 모두 언설을 통한 방편으로서 중생의 번뇌를 제거해주는 방편으로 지제전(止啼錢)에 불과한데, 부처님의 정법안장은 실상무상(實相無相)으로서 이심전심(以心傳心) 및 이법인법(以法印法)의 도리에 의거하여 전승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처음으로 그 심법의 소유자를 마하가섭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계보에 착수한 것이 곧 전등계보의 출현이었다.

2. 중국선종 전등계보의 출현

오늘날 접하는 중국선법의 시작은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선법 및 선종의 계보는 달마를 초조로 확정해두고 그 정통을 누가 계승하였는가 하는 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전등사서의 출현이 바로 〈능가불인법지(楞伽佛人法志)〉 · 〈전법보기(傳法寶紀)〉 ·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 북종(北宗)의 전등사서였고, 돈황본 〈단경〉 · 〈보림전〉 · 〈조당집(祖堂集)〉으로 계승되는 남종(南宗)의 전등사서였으며, 기타 정중종(淨衆宗)과 보당종(保唐宗)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역대법보기〉였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보리달마를 중국선법의 정점에 내세우고 다시 그로부터 달마의 선법을 다시 이전의 시대 곧 인도의 전법으로까지 확대하여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에게까지 소급시켜 그 정법안장을 계승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중국선법의 계보가 단순히 중국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의 근원에 통해 있음을 겨냥한 것이었다. 소위 인도 선법의 계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경론의 자료로는 〈부법장인연전〉을 비롯하여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의 9조설, 〈마하지관(摩訶止觀)〉의 23조설, 돈황출토본 〈단경〉의 28조설 등이 있는데, 이후에 돈황본 〈단경〉 · 〈조계대사전〉 · 〈보림전〉을 비롯한 남종의 전등계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 중국선종의 전등계보의 출현 및 인가증명(印可證明) 그리고 부법전의(付法傳衣) 등은 역사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선종에서 자파의 종지를 드러내고 보급하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고 기관이었다. 그 때문에 다분히 전법계보가 주장한 내용은 당사자가 살아 있는 현재가 아니라 당사자가 입적한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과거로까지 소급하여 주장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곧 과거의 행적 및 선법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파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끼워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써 자파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법안장의 역사적인 전승과 그 정통성을 뒷받침해주는 장치로서 선종파 자체 내에서 경쟁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전법계보였다.



조선 선종 법맥의 중심이었던 나옹선사 진영.

고려 후기 선종서 전등 법맥 중시해
전등, 정법안장 전승의 의미로 정착
중국 선법의 시작은 보리달마로부터
전등법계, 정법안장 · 불자혜명 계승

3. 한국선에서 전등법맥의 출현과 의의

한국의 선종사에서 법계의 정통성과 선법의 전승이라는 두 측면이 어느 때보다도 난립하고 있던 시기가 고려 후기였다. 이 무렵은 기존부터 고려로 전승되어 오던 법계가 소위 조계선법으로 불리는 구산문의 선법과 외국의 유학승을 통해서 전승되고 다져진 중국 임제종 계통의 선법 사이에 모종의 합일점이 필요한 때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소위 구산문 가운데 사굴산문과 가지산문의 선법 및 법계가 주류를 구성하고 있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4세기 초반에는 만항(萬恒, 1249~1319)과 충감(冲鑑, 1274~1338) 등 수선사 계통과 혼구(混丘, 1250~1322) 등 가지산문 계통이 있었고,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 등을 통해서 전승되었다.

이들 사이에서 후자에 속했던 태고 보우는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고 기존의 구산문을 당시에 수입된 임제종지의 기틀을 통하여 통합하려고 했으며, 그 시도는 대단히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외적인 측면이었던 사회와 정치적인 이유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선종의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뚜렷한 전등계보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구산문으로 전승된 선법의 색깔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찬술된 전등사서는 5종에 이른다.

첫째로 1372년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2권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선종의 전등사서로서 선종 조사계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이 〈직지〉가 출현한 157년 이후에는 〈통록촬요(通錄撮要)〉 4권(1529)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본래 중국에서 공진(共振)이 찬술한 〈조원통록(祖源通錄)〉 24권을 송 대의 진실(眞實)이 요약하고 발췌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조선 초기의 숭묵(崇默)이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셋째로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 1권은 그로부터 159년 이후(1688)에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가 전승했던 것을 월저 도안(月渚道安, 1638~1715)이 보완한 것이다. 이것은 선종의 종파와 법맥을 도표로 그려 놓은 절첩본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과거칠불로부터 인도 및 중국을 거쳐 고려 말기 그리고 조선 초기의 나옹 혜근-무학 자초를 거쳐 청허 휴정-사명 유정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도식으로 낱낱이 나열한 부분이고, 둘은 선종오가의 법맥을 요약한 게송 부분이며, 셋은 월저 도안 자신의 발문(跋文)이 수록된 부분이다. 내용은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을 제외한 4종을 남악의 법계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점은 선종사에 대한 법맥의 오류로 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를 관통해온 하나의 흐름이었다. 넷째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2권 1책은 조선 후기 영조 시대에 사암 채영(獅巖采永)이 찬술한 것으로 1764년에 전주 송광사에서 간행되었다. 이것도 선종의 법맥상승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로 〈조계고승전(曹溪高僧傳)〉 1권은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이 찬술한 것으로 가장 최근의 고승전이다. 수록된 내용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승려에 대한 기록으로 보조 지눌(普照知訥)로부터 송광사 16국사, 태고 보우에서 청허 휴정(淸虛休靜) 및 부휴 선수(浮休善修)로 이어지는 태고법통의 조선시대 계보가 포함되어 있고, 송광사에 주석한 나옹 혜근과 제자 무학 자초 등 나옹계 승려, 그리고 편자가 속한 부휴 계통의 고승들이 중심이다.

이처럼 선종의 전등사서류가 처음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속해 왔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등법계(傳燈法系)를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불교의 교학에 속하는 어떤 종파보다도 선종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만큼 전등법계는 정법안장과 불조혜명을 계승하는 명분이었고 개별적인 종파를 역사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실제적인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전등법맥의 상승(相承)은 중국민족의 오래된 정통의 존중 내지 가문의 존속과 계승이라는 대의명분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때문에 정통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계로 취급받는 부류는 언제나 따돌림을 당하고 오래지 않아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점에서 선종에서는 일찍부터 자파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법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법계를 부분적으로 가감 내지 날조하는 일조차 비일비재하였고, 나아가서 정통의 계승자라는 물증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선종의 역사는 그 세력에 걸맞는 명분을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었다. 고려 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선종의 전등법맥에 대한 시대적인 자각이 크게 싹트는 시대였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대형사찰 명품고가의 마이크와 비교시 장난감수준의 차이를 확인 후 할부구입

전화를 주시면 그 부근을 지날때 정확하게 비교만 해드림

▣ 특징 : 권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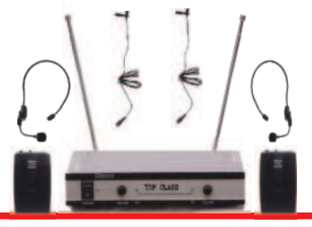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증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⑱ 스미소니언 〈지장보살도〉 ①



▶ **한줄 요약**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에 소장된 고려불화 〈지장보살도〉는 지장보살 단독상 중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손에 든 여의주는 무명의 타파하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여의주 든 지장보살, 무명 밝히네

우리나라 〈지장보살도〉의 단독상 그림으로,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 중 하나가 미국 땅에 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Smithsonian)의 아시아 미술 박물관인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예술품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 소장된 〈지장보살도〉는 고려시대 귀족불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 우아하고 고상한 풍모가 단연 최고의 품격이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하고, 총 19개의 다양한 국립박물관을 총괄한다. 특히 스미소니언의 항공우주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등은 세계 최고 최다 소장품으로 세계인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워싱턴서 만난 고려 지장보살

수년 전, 미국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된 한국 유물을 조사하던 중, 당시 아시아 담당 학예사였던 유키오 리빗(현재 하버드대 미술사학 교수)이 최근 구입한 것이라면서 작품 한 점을 갖고 나왔다. 본지에 소개하는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였다.(그림①) 필자가 조사한 다수의 고려시대 지장보살 독존상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우선 얼굴 상호가 원만하고 후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체의 맵시가 압권이다. 왼발을 살짝 내밀고 무게 중심을 뒷발에 실었는데, 이로 인해 우측(정면에서 보아) 옷자락이 미풍에 날리듯 포물선을 그리며 뻗어 있다. 물론 과하지 않게 살랑 끝자락이 날리듯 처리했다. 지물(持物)인 석장은 비스듬히 왼쪽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바치고 있다. 손가락 모습은 마치 첼로를 켜듯 매끄럽다. 한편, 오른팔은 접어 올려 손목을 꺾어 그 위에 여의주를 살포시 들고 있다.(그림②) 검지와 엄지로 살짝 쥐고 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펼쳤다. 섬섬옥수 손가락 중 특히 새끼손가락을 툭 떨구고 있는 모습에서, 섬세한 우아함을 십분 느낀다.

지장보살 독존상 중 최고 명작

가사 옷자락의 떨어지는 선 · 긴 석장의 각도 · 동그란 여의주를 쥐고 있는 손모양 등에는 과장되지 않은 고상함이 있다. 미풍에 날리듯 흔들리는 아랫단, 무관심한 듯 몸에 기댄 석장. 하지만 여의주는 잘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듯, 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제시하고 있다. 진한 보랏빛 계통의 감색(紺色) 가사와 그 안에 입은 붉은 군의(裙衣)의 채도와 색감의 대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가사와 장삼 위를 수놓는 반짝이는 금니(金泥) 문양이 영롱하게 빛난다. 도톰한 발을 받치고 있는 활짝 핀 붉은 연꽃 속에는 비단 실같이 가는 금선의 입맥이 한 가득이다. 연꽃잎의 안쪽 가장자리는 분홍의 엷은 색이고, 내부로 갈수록 점차로 붉은색이 짙어진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톤의 변화와 금니 선의 영롱함이 어우러져 매우 고급스럽다.

'地藏', 땅이 만물을 품듯!

지장보살의 세련된 포즈와 기품 넘치는 디테일의 조화.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장보살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신비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지옥 구제의 보살' 또는 '업장 소멸의 보살'로 잘 알려져 있다. 지장보살은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악업을 소멸해 '삼악도(지옥 · 아귀 · 축생의 세계)'에서 구해준다. 기본적으로 악업이 소멸되어야 해탈하기에,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와 직결되는 존격이다.

美스미소니언 소장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단독상 중 최고 수준
중생 구제 지장보살이 손에 든
여의주, 무명 타파 깨달음 상징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기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겁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주기는 우거진 숲과 같고,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겐 쉬어 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겐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달디 단 과실과 같고, 몸이 드러난 자에겐 의복과 같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과 같고, 빈궁한 자에겐 여의보주와 같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의지할 바가 되고, 갖가지 곡식을 가꾸는 이에게는 단비가 되고…."

〈지장십륜경(정식 제명: 대승대집지장십륜경)〉에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장보살의 역할이 쓰여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는 전지전능한 면모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과 유사하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응신하여 구제하는 '7난3독'의 상황들은 사건 사고들로 구성되는, 목숨이 위험에 처한 극한 상황들이다. 반면, 지장보살의 경우에는 중생이 일상적으로 겪는 궁핍과 상실, 고통까지 모두 포함된다.

선업 '증장'시켜 '악업'서 구한다

마치 어찌할 바 모르는 아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 주듯, 무엇이든 포용하는 따스함이 느껴진다. 지장보살의 어원은 범어 '키시티가르바(Ksiti-garbha)'이다. '키스티'란 '대지(大地)'를 뜻하고, '가르바'란 '생명을 품는 태(胎)'를 의미한다. 이것을 직역하면 '지장(地藏)'이 된다. 말 그대로, 이 땅(지구)를 거대한 자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고대 인도의 '대지의 신'인 '대모지신(大母地神, Mother Earth)'과 직결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대지가 세상 만물을 품어 발육 성장시키는 '신성한 힘'을 상징한다. 땅이 차별 없이 만물을 품어 함장하고 성장시켜 지상에 내어놓듯, 지장보살 역시 중생이 어떤 악업을 지어도 차별 없이 품어 극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명을 증장시키고, 신체를 증장시키고, 무병토록 증장시키고, 수명을 증장시키고, 몸의 힘을 증장시키고, 명성을 증장시키고, 자구를 증장시키고… 〈중략〉 유정을 성숙시키는 일을 증장시키고, 대자대비를 증장시키고, 일체 선법을 증장시키고, 대지(大地)의 정기와 자양분을 증장시키고, 일체 중생의 정기를 증장시키고…."

〈지장십륜경〉에는 "유정이 필요로 하는 의복, 침구, 약품, 평상, 곡식, 집 등 모든 구체적인 필수품에서부터 일체의 모든 안락한 환경, 지위, 이익, 명예, 공덕, 경지, 성품, 아들딸, 복덕 등 무엇이든 그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이끈다"고 한다. 지장보살은 '유정세계의 모든 것을 이익 되게 증장시키는 신성한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명부전(冥府殿)의 주존, 즉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주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근본 의미를 살펴보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의미에 앞서, '대지가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기르는 것처럼 중생을 윤택하게 증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지의 신'으로서의 본원적 의미에서, 선업을 증장시켜 악업 중생을 구한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여의주, 무엇이든 나오는 보배구슬

〈지장십륜경〉 서품에는 "구름과 비와 빗소리가 한 차례 지나가 법상에 모여든 모든 이를 장엄"하는 풍경이 나온다. 그런데 그 후, 모두가 각자의 손에 여의주가 들려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여의주는 모든 원하는 것을 주는 마법의 여의주이다. 불교에서는 '궁극의 깨달음' 또는 '반야지혜'를 표현하는 도상이다.

"하나하나의 여의주로부터 온갖 보배가 비 오듯 하고, 또 온갖 광명이 비추는데, 그 빛으로 인해 한 하나의 유정들이 모두 시방의 갠지스 강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보았다."

모든 존재들은 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고, 이 여의주는 부처님 세계인 법계로 직결된다. 여의주에서 나오는 빛으로 중생들은 온갖 원하는 바를 갖추고, 번뇌에서 벗어나 오묘한 즐거움(법열)으로 충만 된다. 지장보살은 지물로 항상 영롱한 여의주를 한 손이 들고 있다.(그림②)

여의주는 〈심청전〉 · 〈콩쥐팥쥐전〉 · 〈별주부전〉 등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상징으로 등장한다. 물론 그 역할은 경전에 언급하였듯, 죽은 생명도 살리는 무엇이든 나오는 '불가사의한 보배'이다. 이 보배는 바로 불성(佛性)을 말한다. '여의주'는 우리의 무명(無明)을 타파하는 '깨달음' 그 자체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에 소장된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모습.

그림②. 깨달음의 상징 '여의주'를 들고 있는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손 도상을 확대한 모습. 여의주는 '무명을 타파'하는 역할을 한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축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게 강해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박원자의 母情佛心 ⑱ 원산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前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 스님은 집에 아무런 말도 없이 19세에 출가했다. 출가한 아들을 어머니는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강주가 돼도, 큰 사찰 주지가 됐어도 어머니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지막이 돼서야 스님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매일 밤, 막차 때까지 정류장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매일 밤, 정류장서 너를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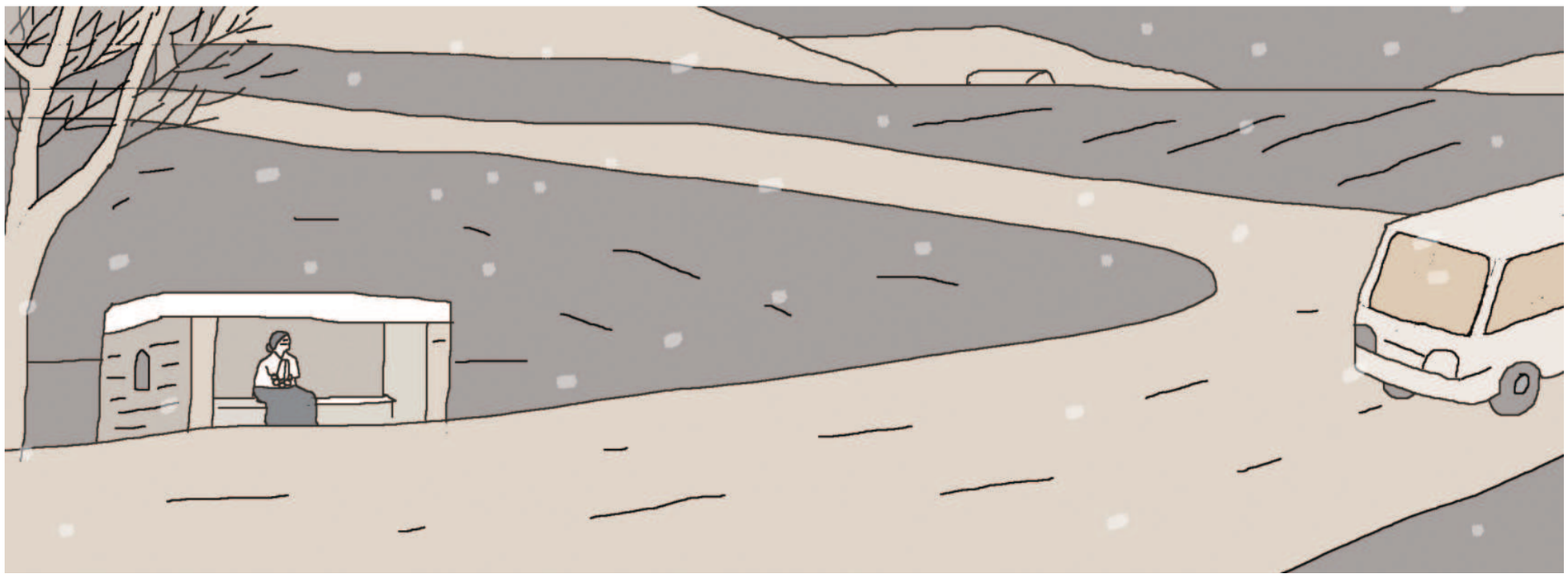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포레스트 검프〉는 1994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다. 제67회 아카데미영화에서 작품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뛰어넘으며 운명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감동 깊게 보여주고 있다. 연기파 배우 톰 행크스가 주인공 포레스트 역을 어찌나 리얼하게 소화하던지 마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았다. 배우는 어쩌면 영화를 찍는 그 순간만은 무심의 경지에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영화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무념(無念), 무주(無住)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내 자식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이렇게 살아야한다' 는 선을 규정해놓고 자식을 몰아가지 않는다. 자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생명의 존엄만을 인정할 뿐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구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한탄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여행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자신의 현실에 충실할 뿐이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보조 장치를 달아주며 그녀는 네가 남들과 달리 다리가 불편해서 이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건 마법의 신발이야. 너를 어디든지 데려다 줄 거야. 남들과 너는 하나도 틀리지 않단다."

포레스트 어머니가 아들의 지능이 정상보다 낮아서 일반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는 교장에게 묻는다. "정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분별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 같은 질문이다. 정말 정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친구 제니가 주변 친구들에게 위협당하는 포레스트에게 외쳤던 말이다. "뛰어! 포레스트! 위험할 땐 괜히 용감한 척 하지 말고 뛰어!"

이때 다리에 차고 있던 보조기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보조기구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포레스트가 이후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게 된다.

"뛰어!"

나는 이 두 한마디가 '무심히 현재에 집중해!' 라는 소리로 들렸다. 실제로 그 후에도 포레스트는 달리기로 대학에 들어가고 전국 미식축구 대표팀에도 들어간다. 군대에 입대에 베트남 파병을 가게 되고 그 후 사업가로도 성공하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많고 수용하며 순수무잡한 무심으로 현재를 온 몸으로 받아들였던 결과였다. 분별없이 무심으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에게서 받은 정신적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느 고승께서 '중생의 병에는 무심이 제일 좋은 약이다' 라고 설법했다는 말을 들었다. 무심은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생각 이전의 본래 청정한 자리이다. 그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세상의 어머니들은 도를 닦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사는 것 같다. 적어도 자식을 키울 때만큼은 그렇다. 통도사 백련암에 주석하시는 원산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다.

원산 스님은 열아홉 살 때 온다 간다 말없이 집을 나와 돌아가지 않았다. 젊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보름쯤 되었을 때 아들이 돌아왔다. 출가를 하겠다고 했다. 출가를 하려면 부모님의 승낙이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돌아온 것이다.

"큰아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 놀라셨겠어요?"

"먼발치서 바라만 보실 뿐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표현도 못하셨어요. 불자이셨던 할머니께서는 손자의 출가를 좋아하셨죠. 집하고 절이 가까웠으니까 자주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체로 스님들께서 출가할 때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던데 스님은 어떠셨나요?"

"이것저것 깊이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절로 돌아왔는데,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어서 부모님 모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출가생활에 전념했죠. 집안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성품이 자비롭고 마음의 폭이 넓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사는 곳에 오지 않았다.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현재에 충실할 뿐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아들 셋, 딸 다섯을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냈다.

> 19세에 말도없이 출가한 원산 스님
> 어머니는 한번도 아들 찾지 않았다
> 生 마지막 밝힌 속내, 스님 눈시울
> "평생 인욕 보살로 살아다 가신 분"

큰아들이 당대 최고의 도인이라 불렸던 노스님에게 출가를 했어도 절에 한번을 오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은사를 찾아와 법문을 듣고 인생을 물었지만, 자신의 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고 농사를 짓고 남은 자식들을 건사하는 것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아들 스님이 몇 년 동안이나 전기, 건물 불사를 한다고 한여름에 소금가마니를 지어 나르고 땀을 흘리며 길을 닦아도, 주변 수천 평의 밭을 일구며 고생을 하고 있어도 찾아오지 않았다. 유명한 스님(직지사 황악학림 관응 스님)에게 전강을 받아 후학을 가르치는 강주 자리에 올랐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했다.

암자 한쪽 끝에 토굴을 지어 무문관이라 이름 짓고 3년 동안이나 토굴 밖을 나서지 않는 폐관수행을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하지 않았다. 폐관수행이 끝나는 날 아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통도사라는 큰 절의 주지를 맡고 있어도 그런가보다 했던 어머니다.

과거의 일을 취하지 않고 미래의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어머니는 이미 보살이었다. 그래서 아들도 어머니에게 특별히 신행생활을 권한 적이 없다. 무엇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수행은 군더더기였는지도 모른다.

"은사이신 경봉 스님께서 부부가 찾아오면 몇 남매를 두었느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다섯 남매를 두었다고 하면 '죽을 고비를 다섯 번 넘겼다' 고 하셨고, 일곱 남매를 두었다고 하면 '일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 하시면서 곁의 남편에게 아내가 고생했으니 좋은 패물이라도 사주라고 하셨죠. 은사 스님의 말씀처럼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고생스러운 일이겠지요. 우리 어머니는 9남매를 낳아 길렀으니 그 고생이 오죽하셨겠어요. 더구나 20대에 일찍 혼자가 되신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호되게 사셨으니 인욕보살이셨죠. 일생을 통해 참고 견디는 모습만을 보이셨죠. 동네어른들이 어머니를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나도 인내심이 많은 편이예요.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법 없이 끝을 내고 말죠. 출가해서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일흔여덟의 스님께 듣는 '지금도 열심히 산다' 는 말씀은 스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현재를 살뿐이라는 의미로 묵직하게 다가왔다. 조계종단의 교육을 책임졌던 스님에게 여쭈었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로서 주어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죠. 오직 한마음으로 자식과 집안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신도들에게 '믿고 실천하고 기도하라. 일체가 하나 되어 여래의 품안에 들게 될 것이니' 라고 법문한다.

스님의 어머니는 95세에 9남매의 효도를 받으며 돌아가셨다고 한다. 말년을 늘 밝고 편안한 모습으로 사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해 전, 자신을 보러온 큰아들 스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을 때, 매일 저녁 동네 정류장으로 나가 기다렸어. 막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날 일흔 살이 넘은 아들 스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어머니가 쉬지도 못한 채 밤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렸을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늦게 하셨을까요?"

"글쎄, 자식 마음이 상할까봐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봐 끝까지 조심하는 존재가 어머니 보살이다.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세상의 어머니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로 살아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어머니들이니까.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부처님 사리에 두 팔 공양하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㉟ 소신공양

이때 일월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滅盡)할 때가 왔으니 그대는 편하게 자리를 펴라. 내 오늘 밤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또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분부하셨다.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며, 모든 보살들과 큰 제자들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과 또한 삼천대천 칠보 세계의 모든 보배나무와 보배 누대와 시중드는 천인들을 다 그대에게 부촉하며, 내가 멸도한 후에 사리도 또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땅히 유포하여 널리 공양을 베풀고 응당 수천 개의 탑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일월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분부하고 나서 그날 밤늦게 열반에 드시었다.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것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안전단나무로 섶을 쌓아 부처님 몸에 공양한 뒤 이를 태워 다비를 했다. 불이 꺼진 후에 사리를 거두어 8만4000의 보배 병을 만들어 8만4000의 탑을 세우니 높이는 3세계요, 표찰(表刹)로 장엄하고 여러 번개를 드리우고 온갖 보배 방울을 달았다.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에 아직 흡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모든 보살인 큰 제자들과 천·용·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내 이제 일월정명덕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한 뒤 곧 8만 4천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태워 7만 2000년 동안 공양하여, 수없는 성문의 도를 구하는 이들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에 머물게 하였다.

그때 모든 보살과 천신·사람·아수라 등이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체중생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는 분이시거늘 이제 팔을 태워서 불구의 몸이 되었구나!"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대중 속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 금색의 몸을 얻게 되리니 이 말이 진실하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이전과 같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그의 두 팔이 저절로 이전과 같이 되니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웠기 때문이니라. 또 그때 마침 삼천대천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였고, 하늘에서 보배 꽃이 비 내리니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일찍이 없던 감격에 젖었다.

일체중생희견보살이 일월정명덕부처님이 열반하자 다비를 하여 부처님 사리에 두 팔을 태워 소신(燒身) 공양을 한 이야기다. 〈법화경〉에서의 사리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법화경〉을 설하면 그 법문이 부처님의 진짜 법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 다보여래가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법화경〉에 등장하며 다보탑이 바로 다보여래의 사리를 상징하는 탑이라는 것이다. 사리는 전신사리(全身舍利), 쇄신사리(碎身舍利)로 구분하고 또 생신사리(生身舍利), 법신사리(法身舍利)라는 이름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작은 결정체로 나타난 진주 같은 물질을 사리라 한다. 〈금강명경〉에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닦아 훈습한 얻기 어려운 결정체로 가장 뛰어난 복전(福田)이라 하였다. 복의 씨앗을 뿌리는 밭이라는 말이다. 〈법원주림〉에는 사리의 색깔에 대해 밝혀 놓은 이야기도 있다. 골(骨)사리는 흰색이며, 육(肉)사리는 붉은색, 발(髮)사리는 검은 색이라 하였다. 또 사리가 증식(增殖)하여 과(顆)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불상에 예배하기 이전에는 부처님의 사리탑을 향해 예배하는 풍습이 먼저 생겼다.

〈반야불교연구원장〉

自性 청정함 알면 모든 戒 원만성취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㉟ 무상삼귀의계(無相三歸依戒)

동아시아에서 경전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던 〈육조단경(六祖壇經)〉은 판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돈황본에는 혜능의 현창(顯彰)에 힘썼던 하택 신회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 덧붙여졌으며, 다시 후대에 선종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홍주종(洪州宗) 사람들의 설이 덧붙여져 오늘날 전하는 〈육조단경〉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보살계의(授菩薩戒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여러 판본 가운데 주요한 것만 간추리면 5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여겨지는 돈황본, 혜흔본 계통의 대승사본(大乘寺本)과 흥성사본(興聖寺本), 설숭본 계통의 덕이본(德異本)과 종보본(宗寶本)을 꼽을 수 있다. 5종 가운데 돈황본을 제외한 4종은 대체로 수보살계의가 비슷하다. 돈황본과 달리 4종본에는 자성오분법신향(自性五分法身香), 무상참회(無相懺悔), 사홍서원(四弘誓願), 무상삼귀의계(無相三歸依戒), 삼신자성불(三身自性佛)의 순서로 되어 있다.

4종본은 모두 자성오분법신향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당시 불교 의례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의례가 공양물을 올리고 향을 사르면서 시작되듯이, 5개의 법신향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①계향(戒香)은 자기 마음속에 악함이나 질투, 탐욕, 성냄 등이 없는 것이다. ②정향(定香)은 산악의 경계에 자기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③혜향(慧香)은 걸림 없는 지혜로 선행에 집착하지 않고 외롭고 가난한 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④해탈향(解脫香)은 마음에 반연이 없어서 자재무애(自在無礙)한 것이다. ⑤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자성의 참 성품이 공(空)에 빠지거나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여(如如)한 것이다.

돈황본과 달리 4종본에는 무상참회와 사홍서원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돈황본에서는 사홍서원한 후에 무상참회를 했지만, 4종본에서는 무상참회한 후에 사홍서원을 한다. 무상참회는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악행을 일시에 자기의 성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홍서원은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끝없는 번뇌를 끊고, 끝없는 법문을 배우고, 위없는 불도(佛道)를 이루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은 자기 자신의 성품 속에 있는 번뇌와 어리석음, 미혹을 뜻한다. 따라서 바른 견해로써 깨우쳐 반야의 지혜로 제거해 버리면 본래 자기 성품 속에 있던 깨달음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된다. 또 자기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스스로 제거하고, 위없이 바른 법을 배우고, 스스로 깨쳐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돈황본과 달리 4종본에서는 사홍서원을 마치고 나서 무상삼귀의계를 받는다. 삼귀의의 대상은 모두 깨달음[覺], 올바름[正], 청정함[淨]으로 동일하다. 첫째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삿되고 미혹함이 생겨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 재물을 여의고 색(色)을 여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생각 생각마다 삿되지 않은 까닭에 애착이 없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의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 일체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으나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범부는 삼귀의계를 받고도 귀의할 대상인 부처를 밖에서 찾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인 자기 성품에 귀의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은 심지(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자성계(自性戒)에 귀의해야 한다. 혜능은 본래 청정하게 자성에 갖추어져 있는 계인 자성계를 설하는데, 이는 〈범망경〉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런 까닭에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 알면 바로 모든 계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⑪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현 모습서 전생·내생 알 수 있어

우리의 삶은 업으로 시작되고 업으로 멸한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 번 살펴보면 무언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하고, 내가 가진 삶의 조건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복덕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번 인생이 멋지고 행복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원망이나 아쉬움이 왠지 부모나 조상에게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남보다 부족한 조건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조물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숙명이나 운명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일까요?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도 없이 오늘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전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지금 행동을 보면 내생을 알 수 있다"고 〈삼세인과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생·현생의 모든 행위 미래생 결정

중생의 삶 업에 따라 행·불행 결정 돼

우리들이 현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에는 과거에 지어 놓은 원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과거의 원인들이 그에 따른 과보를 남깁니다. 현생에서 지금 짓는 모든 행위 역시도 다음 세상에 태어날 윤회 생애에 필연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생에 지어 놓은 것과 현생에 짓는 모든 행위는 현생과 미래생의 삶의 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중유세계(中有世界)에서 중음신(中陰身)으로 머무르는 동안에도 과거생과 현생에서 지은 업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회하는 중생의 삶은 과거생에 지은 업보로 현생에 태어나고 전생에 지은 업력과 현생에서 지은 업력으로 또 악업을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의 삶은 업보로 시작되고 업보로 살아가며 업보로 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아함경〉 권 제44 '근본분별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저 중생들은 스스로가 행한 업으로 말미암아,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업에 인연하고 업을 의지하여, 업에 따른 장소에서 중생은 그 업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묘(妙)하고 묘하지 않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의 삶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조물주나 절대신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적 노력과 지혜로운 행위들 여하에 따라 나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업(業)과 업보(業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을 쌓으며 또한 전생에 지어 놓았던 악업을 녹이는 수행을 통해서 좋은 업을 쌓아 스스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주 지 : 도암 (속명 : 이용린)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29번길 64-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율림원
• 주 지 : 선묵 (불명 : 법화)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58-2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7호 | A11 | 전면광고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사, 대사, 종사, 율사, 종무사, 종신사, 종학사, 교학사
◆ 포교계위, 법사법위, 종법성위증 부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불교의식 학인모집

• 천도재, 49재, 사시불공 등
• 북, 징, 경쇠, 요령, 목탁
• 매주 일요일 오후3시 실용강의
• 승속 무관 수강 가능

영남범음범패 조은사 (경북 경산시내)

010-5315-3589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8352-6042

서울에 있는 사찰입니다.

인연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 • •

010-8721-2198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름으로 사주 풀이법

◈◈ 절간 특별비법 · 타로 ◈◈

*신을 모셔도 말문 못여신 신제자님 특별우대
*스님 · 무속인 환영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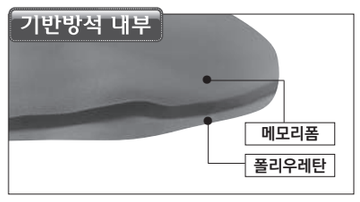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7호 | A12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부산 최고 명당자리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 감곡kt에서7분거리
●대지 계획관리 550평 요양원 및 별장으로 공사했습니다
●사찰, 요양원, 최고급 펜션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010-5883-2255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슬라브 42평중, 대웅전26평,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 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 싯가이하로 양도함
●가격 : 절충

010-6425-8274

포 교 당 안 내

●위치 : 서울 연신내 지하철 옆
●약 10평, 반지층, 임법당
●방2개, 거실1
●법당(시설 일체) 인수 가능한 분, 절충가능
●보 500만, 월 50만
●개인사정으로 양도함

010-5399-1225

사 찰 안 내

●울산
●대지 149평
●대웅전 1동 20평
●요사채 17평, 요사채 10평
●도시가스
●가액 : 6억 5천만원

010-3811-5466
010-3576-2015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토 굴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강남권 45분
●스님토굴, 전원주택형 수익성 양호
●대지 210평, 건평 40평
●긴 복도형, 지열, 난방비 최소, 3백년 느티나무, 불자
●가격협의

010-6285-370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보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377-2279

별장토굴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대지면적 약 전체 2800평
●정리된(벌목) 임야 약 2천평 (지목 대지 포함)계곡접하고 있음, 국유지 300만평 접함
●건 물 : 없음
●가 액 : 6천만원

010-4124-7788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가액 : 1억

010-4156-3779

사찰 안내

●대지 1,700평, 법당 60평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로 (전통시장내)
●2층 83평(법당 43평, 요사채 40평)
●모든시설 완벽(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증금 4천만원, 월 38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08-9321

포 교 원 할 분

●위치 : 서울 강서구 소재 시장옆 25평, 2층 남향
●보 500만, 월 50만
●사찰매매, 부전, 공양주 일할분 쓸분
●결혼정보 상신입니다. 서울 명동 소재
●결혼할분 상담하세요.

010-5381-141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독채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
●시설금 1천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고성군 바닷가
●대지 : 240평, 전(밭)289평
●주건물 : 법당, 산신각, 공양간
●가액 : 3억5천
●절충가능

010-3185-6165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1층 : 35평
●법당, 방1, 공양실
●보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59-9477
010-8752-9477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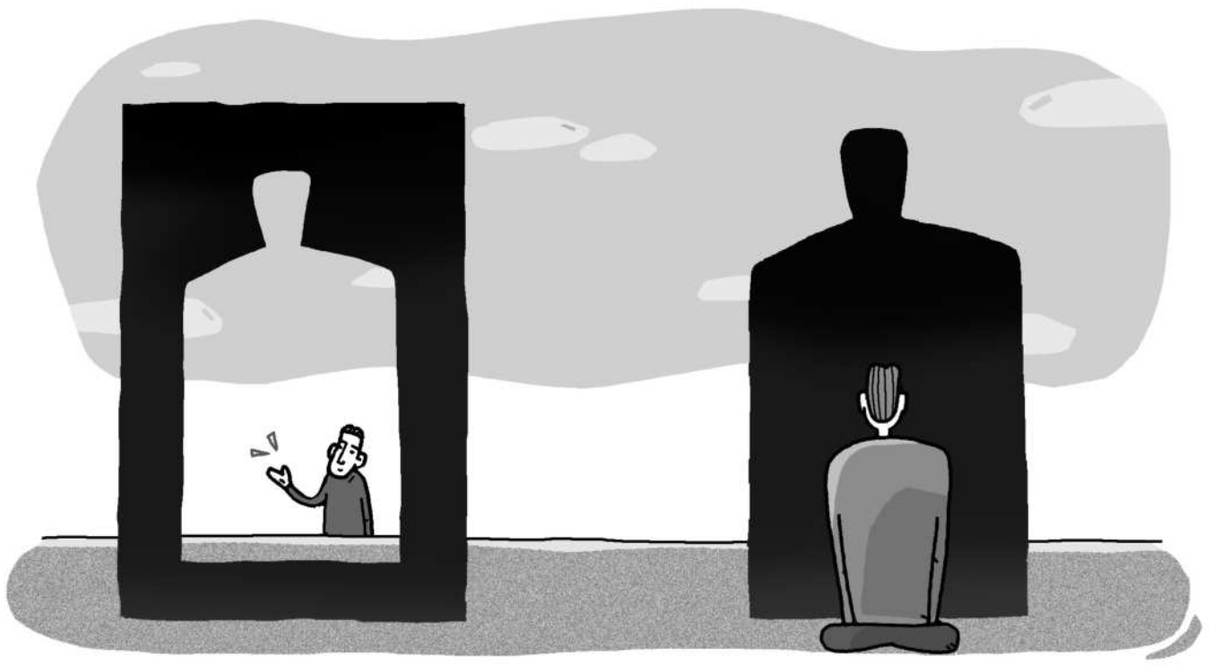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 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조그마한 내 한 티끌 같은 불에서 우주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항상 같이 앉아 주시는데 한편 감사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그렇게 기복으로 자꾸 나가는데, 자기 가짜 면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진짜 면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까지 쨀끔 나옵니다, 감사해서요. 하하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임진왜란' 하는 걸 보시죠? 그랬을 때에 서산 대사 대목이며 일본에서 온 스님의 대목 보셨죠? 물로써 군사를 죽이는 거와 또 물이 치켜 올라가게끔 서산 대사가 던진 문제요. 또는 일본에서 조선을 탐지하러 왔을 때에 서산 대사가, 그 동자가 나서서 모든 스님들을 붙들어서 못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이러는 대목 보셨죠? 여러분은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마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즉 말하자면 애들 만화 정도로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만화가 아닌 진짜 그 동자라면, 스님 자체의 모습은 가(假)모습이지만 스님의 진짜 동자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영화로써 보여 주려니까 그 동자가 보이지 그 동자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스님의 참동자인 것입니다. 부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참부처님은 줄지 않으면서 바로 동자가 나가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그, 임진왜란 때 붓을 던졌다든가 물 수 자를 써서 던졌다든가 하는 거는 가(假), 글씨 쓴 거나 종잇장이, 즉 말하자면 가짭니다. 그 던진 것을 따르지 마시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쥐어서 이렇게 던졌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그 물건을 쫓아다니지 말고 던진 놈한테 달려들어서 물어라 이거야, "왜 던졌느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 던진 글씨와 종잇장이 진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참마음에서 진짜 보살행을 하시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 수레가 돌듯이 말입니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관한 건이라면 그렇게 물로 치고, 악이라면 너무 대의적인 문제입니다. 죽이 끓고 밥이 끓는 데에 대선사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에 나서는 것이 바로 대인의 그, 불바퀴를 돌리는 용(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어이그! 저거 만화 같애. 저거 만화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럴 겁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어느 마음공부 하는 분이 그믐밤에 어디를 지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더랍니다. 덫에 걸린 거죠.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는데 고만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앞뒤가 막혀서 나올 수가 없어, 하늘만 보이지.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부처님을 찾아서, 그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 육(肉)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내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육의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홀랑 발겨서 얘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은 대들보고 여자는 서까래라고 봅시다. 그런데 대들보다 서까래다 할 게 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한 식구가 모두 모여서 사는데, 여러분한테 항상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가 재밌게 살고 할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 하고 사는데 할 말, 안 할 말 다 해 가며 악을 악을 쓰고 이 세상 모두가 제가끔들 그냥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싸운다면 복도 들어오다가도 딱 나가. '이놈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내 맘이 상해서 못 살겠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상에는 돈도 생명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어. 내가 없다면 그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력, 판단력이 부실한 사람들은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돈의 구원도 못 받을 것이요, 돈도 나갈 것이요, 복이 다 나가. 그리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 액이나, 즉 말하자면 인과응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가 거기에 매달려서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이익이 될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만날 시시한 얘기만 해." 그러지 마시고 더러운 연못에서, 질척질척한 데서 연꽃이 핀다는 거, 그 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그마한 내 한 티끌 같은 불에서 우주를 밝힐 수도 있고, 내 마음 하나의 그 마음에서 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우환을 끊을 수도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교양, 지혜, 모든 판단이 나옴으로써 우리 가정도 사회도, 지금 공장이나 어떠한 장사하는, 상업하는 분들이나 모든 게 거기에서 보풀어지는 것입니다, 한마음에서.

그러니 모두가 그 마음에서 가설이 돼 가지고 저 태양에나 혹성에나 별성에나 모든, 이 물에나 해안이나 지상에나 산에나 이러한 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단 말이야, 법망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한다면 가설이 돼 있는 대로 다 퍼지게 돼. 잘해도 퍼지고 못해도 퍼지게 돼 있어. 내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것을 법망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모진 욕을 해서도 아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교양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렇게 모진 욕을 해서도 아니 되고, 불안을 일으켜도 아니 되고, 또 모진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미운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증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모든 생각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애를 낳아도 기품이 있고 유유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어린애를 배면 "가운데 토막으로 먹어라.", "교도소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가렸습니다. 그것은 옛날 노인네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지혜가 컸다고 봅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한 생각이 그렇게 무섭고 한 증오가 그렇게 무섭고, 그 업보는 뭘로도 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끊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부유하게 대대손손 끊임없이 부자로…, 부자라는 건 돈이 많아서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하고 모든 게, 일체가 결부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라야 돈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정도 가난하겠죠. 모두가 가난해요, 일체가 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앞에, 어느 가정에도 공덕이 깃들고 복이 깃들고 우환과 모든 가환이 녹아 없어지게끔 하는 도리가 지금 내가 일러 드리는 그 도리입니다. 그 도리만 갖는다면 여러분한테 열쇠가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이라고 열쇠가 맡겨지고 중이 아니라고 열쇠가 안 맡겨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습의 증오, 습으로 망하는 수가 있죠. 습을 뗀다면 참 모든…. (중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태자 될 아이가 없어서 어느 스님께 빌러 왔는데, 애기를 꼭 줘야만 하겠는데 그냥 줘서 될 일이 아니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애기나 줘서는 인군이 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두 스님이 친구였는데 하나가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스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그 스님이 바로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천백 화신입니다.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더라는 얘깁니다.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 스님이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는 거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 망건 쓰고 버선 신고 이거, 40년 살기가 참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느라고 방편을 쓰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마큼 고초가 많고 얼마큼 애로가 많은지를

☞ A14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

이날까지 자기를 형성시켜 온 이름 없는 참자기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 A13면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 거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지마는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좇아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 천백억화신이라니 아니, 그 스님이 열로 되면 아니 되나, 만으로 되면 아니 되나? 이 공간에 꽉 찼는데 그 스님이 하나 빠졌다고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니 그 스님은 부처이신 거라. 산 부처라. 산 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서 물 한 그릇 뚝 떠서 줬단 말이야, 목마른 사람한테. 그 식이야. 그러면 그 바닷물이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 갖다가 들이부었는데도 아니, 거기 두드러집디까?

이렇게 자재력이 있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법을 여러분은 그 도리를 모르고 만화로만 생각하고 그 말귀만 따라서 좇아다니지, 색을 보고 좇아다니지, 부처님이 돌을 던지고 "저거 뭐냐?" 하면 돌 굴러가는 걸 보고 그 돌을 쫓아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돌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돌인 줄 안다 이겁니다, 응?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종을 울리면 종 울리는 소리만 듣고 그걸 소리라고 하거든. 그걸 듣는 거라. 종 치는 거하고 소리하고 듣는 거야. 그 소리만 좇아다니다가 뭘 합니까? 그 뜻을 좇아야지.

우리가 지금 향 하나 꽂고 향 피우는 것도 바로 법문이요, 여러분은 말을 해야만이 법문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해도 함이 없고 이걸 들었어도 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든 이 자체의 근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 이것이 성품 따라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뱃속도 알면…. 예를 들어서 자기 뱃속을 자기가 알아야 내 뱃속도 알 수 있고 또 역대의 부처님 뱃속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우주의 섭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열쇠 아닌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도, 내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 화목 화목, 죽을 때까지 화목, 화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세상에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나니까 모든 게 시들한 거라.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재밌게 애들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를 얻어 가지고는 나가서 영 돌아본 체를 안 합니다. 야, 돈도 다 까불지 그냥, 아주 그냥 매기단을 칩니다.

그래서 "얘야, 주인공에 맡겨 버리고 가만 둬라. 저 하고 싶은 대로 이 줄을 늦춰 줘라, 늦춰 줘. 가는 대로 늦춰 줘라. 이 마음과 마음의 줄은 남편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거하고 줄이 있다. 이 줄을 그냥 늦춰 줘라. 그리고 자비로써 그냥 놔둬라. 여기다 맡기고 놔 둬, 그냥."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줄은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싫증이 났어, 그만. 허허, 고생만 되고. 야, 이거 그냥 버린 것도 아깝고 그냥 싫증이 나 버리니까 그 줄이 인제 슬슬 늦춰진단 말이야, 돌아오느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로 줄이 느근하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느근한 대로만 잡아당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집으로 쏙 들어왔는데 바짝 쥐었단 말이야. 허허허. 그러니까 너무도 사랑하거든. 가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더라. 세상에 다니면서 봐도 너 같은 아내가 없고, 너같이 예쁜 아내가 없고, 마음씨 그렇게 착한 아내가 없더라." 이러고서는 그냥, 그냥 위에다 놓는 거라, 응? 그러니 전자의 애정이, 없던 애정도 솟아 나오는 거라.

> **여러분이 겁을 거쳐오면서 살던 습에 의해 속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조용히 좋은 말로, 하다가도 안 되면 딱 멈추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화목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주인공에 다, 주인공 줄에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 착해져. 그리고 사랑을 받게 돼. 아무리 아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도 전자의 인연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인연줄을 녹여 주기 위해서는, 그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줄만 쥐고선 그냥 다 놔두면, 그렇게 믿고 놔두면 그냥 저절로 녹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야. 줄을 쥐고선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뛰니까, 이게 가는 거 그냥 당기고 당기고 하니까 가 보질 못하는 거야. 가서 그냥, 이것을 좀 느긋하게 두면 그냥 갔다가 한번 휘 돌아서 '아,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안 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게 딱 쥐고서는 늘어지니까 그냥 신경질을 내고 온통 야단이 나는 거죠.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탁 던져요, 응?

우리한테 많은 재산도, 물건 이것도 본래 무면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다 듬고 분 바르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가짜야.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이건 가짜다 이거야. 그러니 자기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자기, 가(假)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있으니 가자기가 모든 거를, 부처님의 뜻을 잡고서 모든 거를 놔라 이거야. 놓되, 여기서는 분명히 놓는다고 하고 가서는, 집에 가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니 어떡합니까? 송구스럽단 말입니다. 내가 다 민망스러워.

우리는 부모를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스님들을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부처님의 그 뜻을 잡고서 나갈 수 있다면 그 법망의 줄이 바로 나한테, 우주 전부에 바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해나 서해나 이런 바다에도 저 태양의 광명을 받고서, 광합성으로서 이렇게 받고선 생명들이 살고, 먹을 건 먹고 보이지 않는 그 생명들을 주워 먹고 이렇게 사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물 바닥 얘기했죠? 그 캄캄하고 차디찬 물바닥에서, 태양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바닥에서도 에너지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 바닥에서도 바로 이 태양에 가설은 돼 있거든. 마음의 가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색을 취하지 않고 마음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곁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야.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느 뼈다귀를 봐도 "저것이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저 뼈다귀가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할머니인지도 모르고 내 형제인지도 모르고 내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냐? 내 자식 아닌 것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것도 없으니 너희들은 내가 여기 이 뼈다귀에다 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문하신 적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서 그렇게 깔봐서도 아니 되고 못 믿어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연(年)으로 쳐도 아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그렇게 끌고 이날까지 오다가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형성시켜 온 자기의 주인공 자체, 이름 없는 참자기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보배 속에서, 그 속에는 별의별 게 다 있고 천차만별로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야, 밥을 달라면 밥이 그 속에 있고 말입니다, 옷을 달라면 옷이 그 속에 있고, 돈을 달라면 돈이 그 속에 있고 말입니다, 보석을 달라면 보석이 그 속에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두 손에 말입니다, 없는 게 없이 놓여 있죠.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머리에도 부처님, 그저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손도 이 손 저 손, 그저 잔등이도 손, 겨드랑에도 손, 그렇게 많이, 뒤에도 눈 앞에도 눈, 그냥 어디에 눈 안 달린 데가 없고 손 안 달린 데가 없고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게 표시지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 해 드릴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독의 욕심으로,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욕심을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아나오던 그 습이 있습니다. 뱀의 모습이든지 곰의 모습이든지 원숭이의 모습이든지 고양이의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잠재해 있던 그 습이 공부를 하려면 그냥 쏟아집니다. 꿈에 나오는 한정 없이 쏟아지는 그 모습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인간이 되기까지 거쳐 나올 때에 살던 그 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딴 남이라고 생각하고 '꿈에 이런 걸 봤으니 어이구, 내가 언짢지.' 왜 언짢습니까? 예?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머리 검은 중생은 그것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한번 구해 주면 그걸 끝끝내 갚고 맙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찾으려고 그런 짐승을 시루에다 찐다 이러면 꼭 갚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아는 부처님께서는, 즉 말하자면 불보살들은 고양이 모가질 쥐고선 "너, 한마디 이르면 이걸 안 죽이고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이걸 죽인다." 했는데 한마디 이르지 못해서 그걸 죽였어도 죽인 게 아닙니다.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마디 하문해서 던지고서는 그 인연 따라서 그거를 쥔 남전 스님도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 당시에 바로 고양이의 무명을 치고, 고양이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인간으로서 환토를 시켰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이 모두가, 하나하나가 너무나 성스럽고 갸륵하고 참, 이 고마운 것을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 여러분이 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그 습에 의해서 속지 마시고, 환상을 보고 속지 마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속지 마시고, 꿈이 나빠서 안 되느니 되느니 이렇게 속지 마시고, 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문제든지 조용히 좋은 말로, 하다가도 안 되면 딱 멈추고, 말하지 말고 여기다가 맡겨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신다면 큰소리가 영 없고 화목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악 쓰고 상 찌그리고 온통 욕하고 그러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저는 그것이 참 사무칩니다.

옛날에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도 그런 걸 많이 봐 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등동물이라면서 어째 저렇게 마구…, 저러다가도 둘이 또 살아. 아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 같으면 그냥 은금이 쏟아진대도 저거 할 텐데 아, 그래도 그냥 칼로 물 베기다 이거야. 그러면 칼로 물 베기는 좋은데, 그것을 다 놔 버리고 칼로 물 베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잠재해 있습니다. 그게 잠재해 있으면서 차고 차고 잠기고 잠겼다가 나중엔 폭발이 됩니다, 또. 그러니 두고두고 있다가 또 폭발이 되고 두고두고 있다 더 쌓여 가지고, 모아 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아지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으니 여여하게,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속을 썩인들 얼마나 썩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간다고…. 중노릇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편안하게들 사십시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한 생 이렇게 알뜰하게 관하고 정진하고 살아서, 세세생생을 우리가 보람 있게 참, 부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모습들이 다 나 아님이 없이 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내가 지금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죽으려면 죽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질 때 그 보람이란 정말이지 눈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9월 4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 현불 논단 |

한가위 보름달 '자비' 가득하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코로나 19로 사회 구성원들 어려움
불평등 구조 심화… 공동체 손상돼

관세음보살 '자비'서원 새로 다가와
"자비는 현실의 고통에 가슴을 열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비심 일으키기 위해 평등심 필수
코로나 공황시대, 자비수행 필요해
자비심 영역과 대상을 확대 해보자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추석이 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 늘 추석 때처럼 되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의 애절한 소망이 담긴 옛글이다. 그런데 어이하랴. 추석 한가위 달을 보면서 〈토지〉에 나오는 박경리 작가의 글이 떠오른다.

"팔월 한가위라 하면 한산 세모시 같은 느낌이 든다. 온기가 없는 달의 아름다움이 연상되어 그렇기도 하려니와 소복단장한 청상과부의 비애가 한산 세모시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추석 잘 지내라고 하는 정치인의 현수막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진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1년이 넘게 이 땅의 온 사람이 전전긍긍하며 움츠리고 살고,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새롭게 다가온다. 관세음보살의 서원은 이 땅에 '자비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니라.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붓다의 깨달음은 자비행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붓다의 전생을 설화문학으로 설정한 〈본생경〉의 주제는 바로 자비행이다. 지구별에서의 붓다 자비행의 첫 출발은 '범천의 설법요청'에 그대로 나타난다. 범천의 간곡한 설법 요청에 붓다는 자비심으로 두루 세상을 살펴보고 전법의 길에 나섰다. 자비행에서 불교가 탄생한다. 어느 서양학자가 정의한 자비의 정의를 새겨 본다.

"자비는 고통과 비애와 비통에 대한 다면적인 반응이다. 자비 속에는 친절, 공감, 관대함, 수용이 포함된다. 용기와 인내와 평정이라는 실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짜인 옷감이 바로 자비이다. 무엇보다 자비는 현실의 고통에 가슴을 열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추석에 떠오르는 한가위 달에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간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사랑'은 유전자의 속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가까운 만큼 더 사랑하고 멀어지면 덜 사랑한다. 경계선 너머에 있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자비는 연민의 윤리를 넘어 우주의 우정이다. 가까운 자가 아니라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고 연민 없이 사랑한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심에서 출발한다.

달라이라마는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평등심을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 공황시대에 자비수행의 실천이 절실하다. 자비수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초기경전이 바로 〈자비경〉이다. 10개의 게송으로 된 자비경은 그 내용이 너무 넓고 깊고, 또한 오늘날의 덕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한다. 다섯 번째 게송을 인용해 보자.

눈에 보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비수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비심의 방사(放射)이다. 방사는 자비심의 대상과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자비를 보편화시키는 방편이다. 한가위 보름달의 빛으로 자비가 이 땅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무관세음보살.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빠알리어를 향한 관심

요즘 빠알리어를 향한 한국 불자들의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과 한국불교의 사찰에서 빠알리어 공부를 하는 모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원본을 읽고자 하는 것이 빠알리어를 접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둘째, 번역가의 능력과 해석에 좌우되는 기존 출판 번역본이 담고 있는 많은 오류가 독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초기불교 경전을 향한 관심을 반영해 저는 그동안 강남 한국명상원에서 매주 목요일 쌍윳따니까야를 가르쳐 왔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마하위하라에서도 온라인(비대면) 빠알리어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늦은 저녁 8시~9시(1시간씩)이며, 수강기간은 10개월입니다.

강의 교재는 스리랑카에서 유명한 빠알리어 권위자인 아상가(Asangar) 교수의 저서로, 강사인 제가 직접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회의 링크는 매주 새롭게 만들어 매번 마하위하라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빠알리어 강의를 마친 후 이어서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빠알리어 독송방이 열립니다.

독송방은 〈마하 빠리닙바나 숫따〉(열반경) 원본을 누구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독송할 수 있도록 개설됐습니다. 빠알리어 공부방과 독송방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PC 혹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전에 줌 회의 링크로 접속하신 후에 참여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부처님은 지배층이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민중어라고 불리는 마가다어로 설법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어이며 토착 민중어인 마가다어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민중어가 바로 오늘날 빠알리어입니다. 이 빠알리어는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사용된 인도 아리안의 '민중어'인 쁘라끄릿뜨(Prakrit)어의 일종으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 민중어로 설법하셨기 때문에 빠알리어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빠알리어는 1차 결집부터 3차 결집까지 이이진 부처님의 말씀이신 성전(聖典), 그리고 경장과 율장과 논장으로 구성된 삼장이 빠알리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빠알리어라는 그 말 자체가 삼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지방어로 부처님 말씀이 오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지방어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어로 전승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빠알리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전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어로 번역하여 전승했을 때 그 의미는 후대로 갈수록 변질될 것입니다. 뜻과 의미는 세계 각국어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전승하는 것만큼은 부처님이 사용하던 언어 그대로, 즉 빠알리어로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교의 가치관이 담긴 빠알리어 단어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사두!'라는 단어이며, 이는 '훌륭하다/좋구나/착하구나/선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한 일을 수행할 때 꼭 '사두! 사두! 사두!'라고 3번 외쳐 보세요! 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3번의 외침은 선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선학원 이사회의 위험한 무리수

재단법인 선학원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이사장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참담한 일이다. 선학원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이미 3선 이사장으로, 임기 중 유례없을 정도로 선학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 꼽힌다. 개인적인 비위인 성범죄에도 선학원 이사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어린이집 재수탁 심사에서까지 탈락하는 참사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청정승풍을 수호하고 정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선학원의 대외적 위상은, 성범죄자 이사장이라는 낙인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사회가 법진 스님의 재선출을 시도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선학원 이사회는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로부터 선학원을 잘 운영하고 이끌어야 할 책무를 위임받은 이들이다. 정관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분원관리규정을 입맛대로 뜯어 고치는가 하면, 이를 무기삼아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을 옭죄는 행위들은 현재의 이사회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학원을 작금의 지경으로 내몬 前 이사장을 다시 재선출하려는 움직임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다.

"지금 이사회가 해야 할 일은 '최종진(법진) 4선 이사장 재선출' 시도가 아니라 '이사 자격 박탈'이다. 이사의 자격은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덕망이 높은 승려' 여야 하기 때문이다."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선학원이 또 한번 퇴보의 길을 걷는 계기를 만들어선 안될 것이다.

안심불교학술원을 향한 기대

안심정사가 한국불교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한다. 이번엔 교육이다. 그동안 기도를 통한 성공적인 포교의 상징으로 손꼽혀 왔다면, 이제 교육을 통해 30년간 응집된 노하우를 회향하겠다는 의미다.

논산의 작은 도량에서 신도 1세대로 시작한 안심정사는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6개 도량에서 신도 3만 세대의 규모를 갖춘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성장했다. 30년만에 일궈낸 경이로운 변화를 딛고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는 점에서 안심정사를 향한 불교계 관심이 남다르다.

안심정사가 새롭게 선보인 안심불교학술원은 기존 사찰들이 운영해 온 불교교양대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프로그램이다. 스님과 전법사, 재가자의 구분도 넘어섰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원력을 가진 누구나에게 무료로 안심정사 30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 스님은 코로나 이후 폐사위기에 처해 사찰 인수를 요청해 오는 스님들을 접하면서, 한국불교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함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불교학술원은 사찰이 살고 사찰답게 유지될 수 있는 대안, 불자들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 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기관인 셈이다.

"안심정사가 한국불교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이를 체계화해서 누구든 한국불교 중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향하고자 결단을 내렸다."

스님의 발언에 안심불교학술원의 존재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다. 안심불교학술원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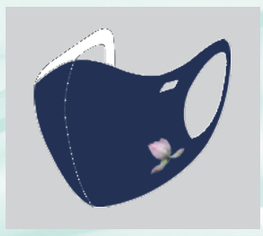
FDA 등록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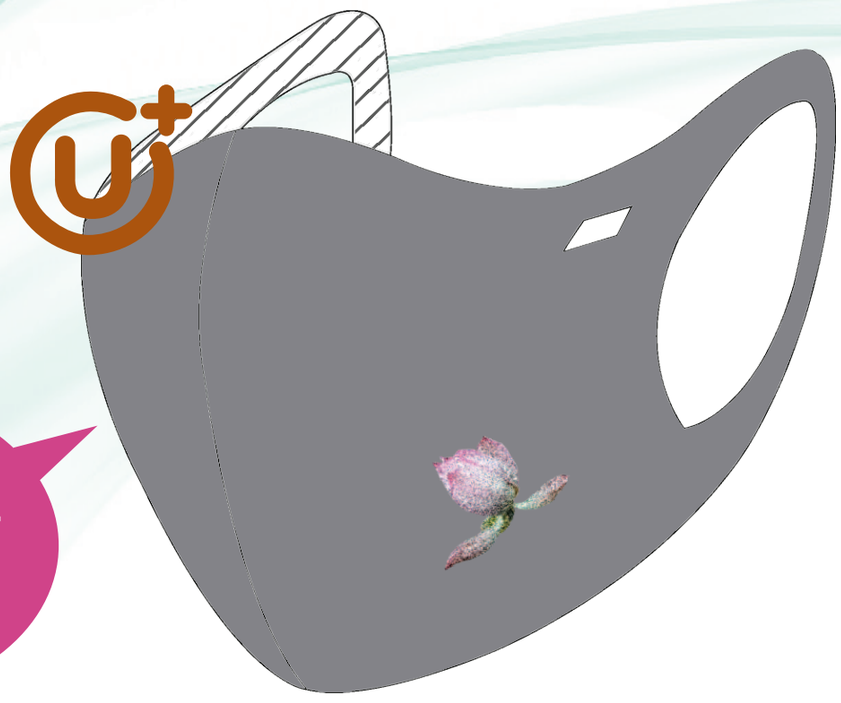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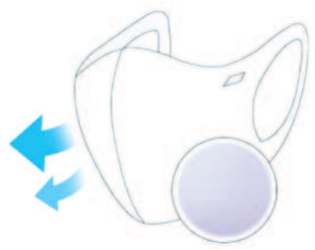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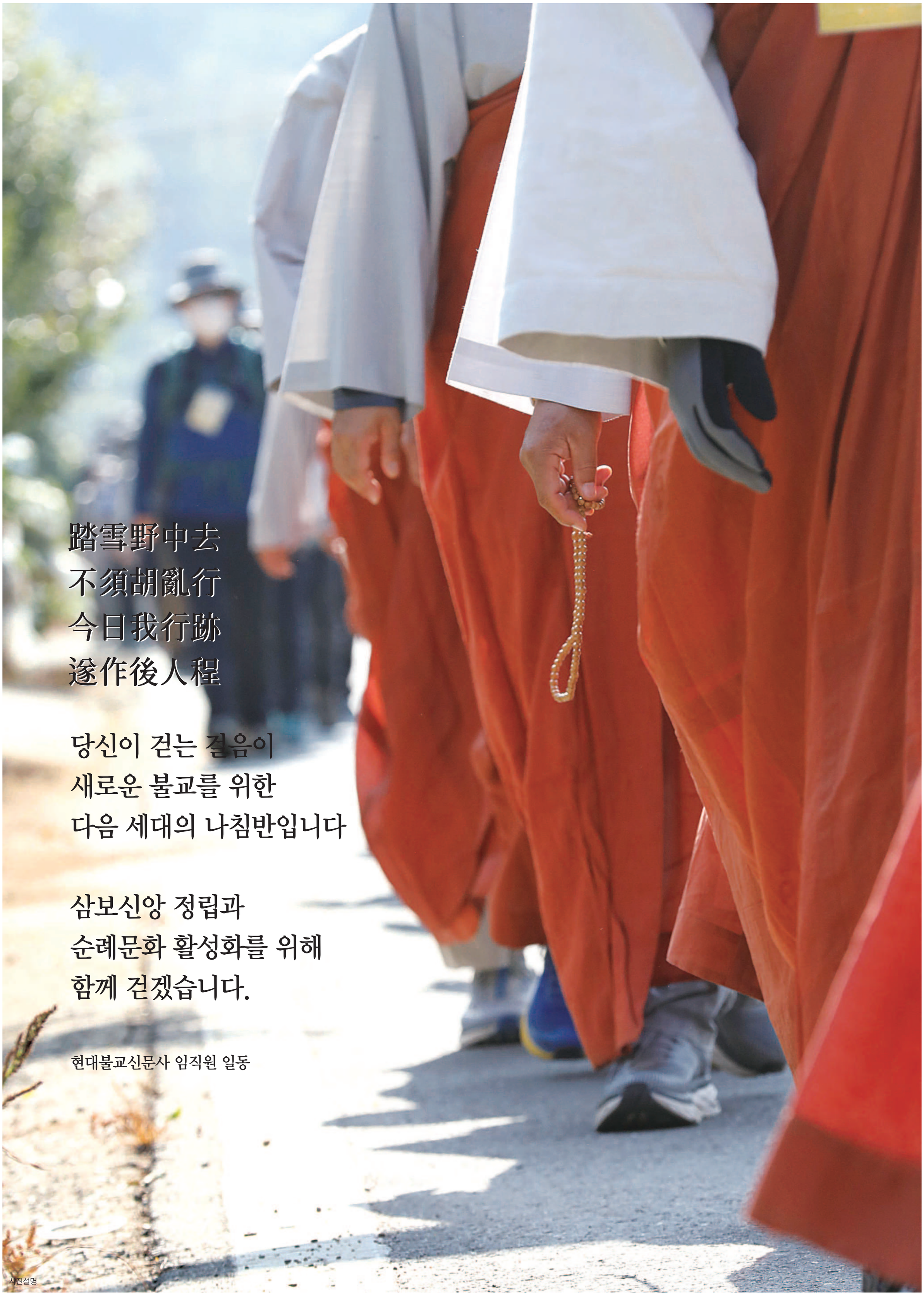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당신이 걷는 걸음이
새로운 불교를 위한
다음 세대의 나침반입니다

삼보신앙 정립과
순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사진설명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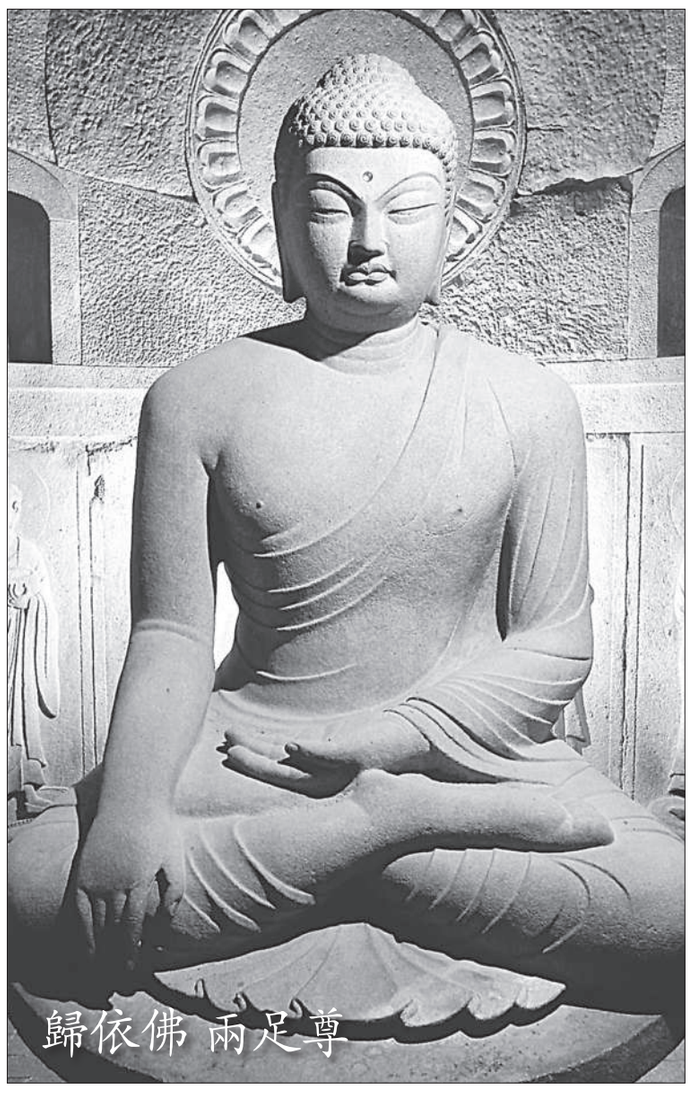
어떻게 걸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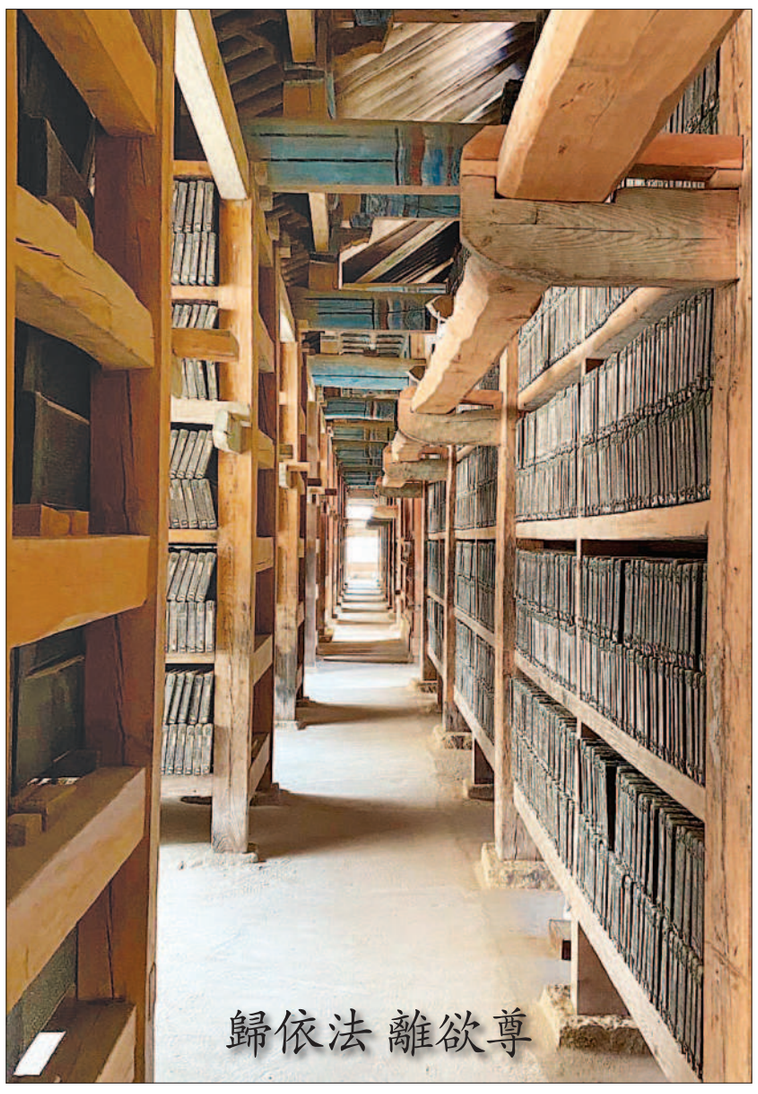
우리가 시작한 공부가
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듯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걷는 것만으로 내일이 보인다면
그 길이 모두의 불국이리라

내일이 오늘의 숙제였듯이
남아 있는 길은 모두의 길
어떻게 걸어야 할까
아프고 아픈 오늘과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

佛 · 法 · 僧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세상에 알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을 본다
내딛는 걸음에 한 생각 또 얹는다
걷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三寶, 불교 신앙 기본… "귀의합니다"

왜 삼보에 주목해야 하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歸依法 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歸依僧 衆中尊

모든 불교법회는 '삼귀의례(三歸依禮)'로 시작한다.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에게 귀의하겠다는 의미의 의식이다.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는 범어로 'ratna-traya', 빠알리어로 'ratana-ttaya'이며, 세 종류의 진귀한 보배, 또는 세 가지 존귀한 보배라는 의미다. '불교 신앙심의 예배대상이자 성물임과 동시에 해탈성불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의지해야 할 그야말로 보배(정인 스님)'가 바로 삼보다.

부처님 열반 이후 원시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불보살의 명호수가 많아지고, 경전량이 방대해졌으며, 교단의 수행체계가 증감이 있었지만, 삼보에 대한 귀의 의무는 오늘날까지 출·재가자 모두에게 믿음의 근간이다. 또한 지역적인 북방불교, 남방불교를 초월해 삼보사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자들의 귀의처인 삼보에 대한 귀의와 예경의 중요성은 경전 곳곳에서 확인된다. 〈증일아함경〉 제12권 21 삼보품에는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삼보 귀의의 공덕을 모든 비구들에게 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스로 귀의하는 덕(德)에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첫 번째 덕이고, 법(法)에 귀의하는 것이 두 번째 덕이며, 승가에 귀의하는 것이 세 번째 덕이다.

첫 번째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가장 존귀하여 더 높은 것 없고 다음으로 또 법을 받들어 섬기면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진다. 현성(賢聖) 대중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은 복밭(福田)이니 그런 사람은 제일가는 지혜가 있어 제일 먼저 복을 받으리라. 만일 그가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면 대중들 속에서 바른 길잡이가 되고 또한 가장 묘한 자리를 얻어 저절로 감로(甘露)를 마시게 되리라.

몸에는 7보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가장 완전한 계를 갖추어 모든 감각기관 새거나 결함 없으리. 게다가 지혜의 바다까지 얻어 열반의 세계로 차츰 나아가리니 이 세 가지에 귀의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세계 또한 어려운 일 없으리."

삼보는 예경 대상이자 성물
불교의 첫 관문, '삼보 귀의'
경전곳곳 삼보 중요성 설해

삼보사찰, 韓불교 특유 신앙
불교 사상 구심화 작업 필요
구심화, 삼보 중심 이뤄져야

이밖에도 〈관무량수경〉에서는 "불(佛)의 이름, 법(法)의 이름을 듣고 승(僧)의 이름을 들을 것, 삼보의 이름을 들으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가운데 불은 불교의 교주로서 일체지인이며, 법은 부처님이 설한 교법을 말하며, 승이란 그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모든 불제자들을 일컫는다"고 했다.

〈잡아비담심론〉 제10에는 "제불소득(諸佛所得)의 무학법에 귀의하면 귀의불이고 열반 무상법에 귀의하면 귀의법이고 승의 무학무법에 귀의하면 귀의승"이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불자들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세 가지 보배, 삼보에 귀의했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는 불교인이 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의례이며 규범이다. 그래서 삼귀의를 삼귀의례 또는 삼귀의계(三歸依戒)라고 하는 것이다.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불교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이 삼보사찰이다. 삼보사찰은 통일신라 전후기에 불사리를 모신 영축산 통도사와 고려 후기에 법사리를 모신 가야산 해인사, 고려시대 16국사와 2왕사를 배출한 조계산 송광사를 중심으로 완성됐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는 말 그대로 삼보를 상징했고, 조선시대 이후 삼보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삼보사찰은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대승불교권 국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찰이다.

붓다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의 적멸보궁은 신라 시대 자장 스님이 진신사리 100과를 전해오면서 비롯됐다. 본래 통도사를 비롯해 상원사, 법흥사, 정암사가 적멸보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1970년대 이후 설악산 봉정암에도 진신사리가 봉안되며 '오대 적멸보궁'으로 자리잡았다.

법보신앙은 불교 전래 이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고구려의 경우 강경(講經)의 상행이, 백제의 경우 율전을 통한 실천 및 주술, 치병을 위한 독경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신라삼보 개념과 경전의 호국공능 인식 경전신앙의 초기적 형태가 행해졌다.

승보 관련 신앙은 선종의 경우 조사신앙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보 공양을 통해 복전(福田)을 짓는 복전사상의 발전은 대승불교권에서 보시 바리밀의 공덕으로 더욱 활성화됐다.

불·법·승 삼보와 그에 대한 귀의는 불교 신앙의 시작점이며, 불교중흥의 구심점도 삼보에 있다. 불보와 법보의 예경과 교단을 수호하고 지켜가는 승보에 대한 존경은 불교 신행의 기본이다. 다시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노권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불·법·승 삼보와 불교 신앙'에서 "인류 종교 신앙사를 고찰해 볼 때 각 종교 사상에 대한 구심화와 원심화의 양면적 작업이 요청돼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불교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원심화 작업에는 큰 장점이 있으나 다양성을 하나의 축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구심화 작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는 불교사상의 구심화 작업을 보강해야 하며, 그런 구심화 작업은 1차적으로 불·법·승 삼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佛寶宗刹 통도사

불보종찰인 통도사의 이름은 통도사가 위치한 산세가 마치 인도 영취산 모습과 통하기에 통도사라 붙여졌다고 하며(此山之形通於印度靈鷲山形), 스님이 되려는 이들이 계를 받는 계단(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爲僧者通而度之)

또한 구도를 통한 깨달음의 경지는 모든 것이 회통(會通)하고 중생을 제도(濟道)하는 것으로 회향되기에 '통도'(通道)라 불리기도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자장(慈藏) 율사가 당나라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와 신라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왕명에 따라 통도사를 창건하며, 승단 규범을 관장하고 법식(法式)을 가르치는 등 불법을 널리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았다. 기록에 따르면 자장율사는 부처님 머리뼈와 어금니, 불사리 100과와 부처님께서 수했던 가사를 이운해왔는데, 가사와 함께 사리 3분의 1을 통도사 계단에 봉안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통도사는 계율의 근본도량이자 신라 승단을 체계화하는 중심지 역할도 했다.

국보 제290호인 통도사 금강계단은 창건의 정신적 근거로 고려 때는 원나라 사신이 참배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통도사에서는 보살계 수계산림 또한 활성화돼 매년 수만 명의 불자들이 계를 받으며 보리심을 키우고 있다. 이날은 수행과 학업에 매진하는 스님들에게 불자들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수계 10회부터 30회까지 다회 참여한 불자들에게도 메달이 수여된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금강계단에 안치돼 있으므로 전각 안에 불상을 조성하지 않고, 전각들이 금강계단을 향해 배치돼 예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 성지인 인도에서도 이러한 가람배치가 흔한데 인도 고대석굴사원 등에서 통도사의 사리봉안 금강계단과 배전인 대웅전 등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도사는 2018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42차 회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위상도 높아진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도사 금강계단



그림 · 박구원

“순례 신앙적 발걸음, 삼보 귀의부터 출발”

특별기고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사적 의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시작되었다. 비구 · 비구니 55명, 우바새 · 우바이 42명 등 사부대중 총 97명이 공식 단원으로 참여하는 이번 걷기 순례는 일생을 걸으면서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한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을 포함하는 삼보사찰 순례는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지닌 의미는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불자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직접 동참하는 사부대중이나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켜보고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형, 무형의 종교적, 지적 자극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겨우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고, 직장생활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경쟁적 삶의 일상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삭막한 현실을 떠나서 조용히 순례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생애 더없는 행복일 수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고, 도반들과 함께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순례길은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을 잇는 걷기 명상 코스를 직접 답사하면서 추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직접 걸으며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삼보에 대한 믿음과 명상수행, 그리고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순례는 신앙적 발걸음, 자기변화의 명상적 발걸음, 그리고 바라밀행의 실천적 발걸음 등 세 가지 발걸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례의 신앙적 발걸음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종교적 순례가 일반 관광과 다른 점은 참여자의 신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삼보에 대한 귀의로 신앙심을 표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삼귀의는 불교의 모든 예경의식에서 빠짐없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 재세 시부터 강조되어온 가르침이다. 〈쌍윳따니까야〉 ‘마하나마의 경(S55:37)’에서 마하나마는 “재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세존(世尊)께서는 “부처님에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에 귀의한다는 것은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시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설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여래십호로 관찰하고 자신도 이와 같은 공덕을 짓겠다는 서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자들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와 신심을 형성하는 근본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삼보사찰 순례는 초기불교부터 강조된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에 전국의 불자들에게 삼귀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불교적인 순례코드 설정 개발이 필요**
> **生의미 걸수 있는 순례길을 조성해야**
> **순례 코스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도**
> **순례길 걸으며 수행하는 명상법 보급**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자기변화를 이끌어 내는 명상적 발걸음이 되는 것은 걷기명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 명상은 부처님 재세 시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한 일반적인 수행법이다. 부처님은 매일 맨발로 걸어서 탁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법을 설하였다. 그리고 직제자들도 부처님이 계시던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개월씩 걸었다. 수행자들은 걸으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기 위해 몰두했다. 이러한 걷기 명상법은 남방 상좌부의 전통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수행자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마하나마의 경(A6:10)’에서는 “고귀한 제자가 경지를 얻고, 가르침을 인식하면, 어떤 명상을 자주 닦습니까”라는 마하나마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여섯 가지 관찰과 알아차림의 대상에 대하여 설하였다. 그것은 불, 법, 승, 지계, 보시, 천상 등에 대한 경지를 얻고,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구체적인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보살도를 닦으시던 여래께서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중생이 앓는 마음의 병을 알고, 그 병에 따라서 중생을 가르치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원력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

순례 동참자들은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복전(福田)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례여행은 많은 길동무들과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매우 평화로운 포교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욱 효과적인 포교방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갖춘 순례코스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일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주길, 둘레길, 올레길, 바우길, 해솔길, 하늘길, 마실길, 억새길, 도성길 등 수많은 길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만 반짝 할 뿐 대부분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환경이 좋은 길을 걷기만 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 삼보사찰 순례코스는 송광사 해인사 불국사로 이어지는 지역에 다양한 사찰,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역사성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례코스에는 숙박시설, 화장실, 음료수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5일 이상 소요되는 순례길을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들이 걷기 위해서는 하루길마다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만 도전할 수 있다. 코스 구간별로 중간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의 일회성 순례가 아니라 생애 의미를 걸고 할 수 있는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스 구간별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한 이야기를 개발해야 한다. 순례길에서 삶의 교훈이 되고 신심이 증장될 수 있는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순례 자체가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코스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찰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순례는 걷기 명상이며 자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수행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법, 몸과 마음을 조복시키는 법, 마음을 관찰하고 마장을 극복하는 법, 현상을 관찰하는 법, 화두를 드는 법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순례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명상법을 제공한다면 수행포교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 체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해 놓을 때 지속적인 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같은 코스를 도는 순례팀을 결성하고 순례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자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면 지역사회 및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불교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입재부터 회향까지 장애없이 걸림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法寶宗刹 해인사

해인사는 고려 팔만대장경판이 봉안돼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라 하여 법보종찰로 불린다.

해인사는 802년 신라 애장왕 3년 순응과 이정 스님이 창건했는데, 이후 결언대덕 스님이 창건을 계속하고 주지가 됐다. 935년 11월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막내아들 김덕지(金德摯) 왕자가 화엄종에 귀의, 법공 스님으로 법수사(法水寺)와 해인사(海印寺)에서 수행했다.

신라 말 승통 희랑 스님이 주지로 고려 왕조 건국에 일조하여, 태조 왕건이 국찰(國刹)로 삼고 전답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해인사는 화재로 인해 여러 번 중창됐는데, 현재 전각 대부분은 조선 시기의 것이다.

해인사의 핵심 전각은 국보 52호로 지정된 장경판전으로 13세기에 제작된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해 15세기경 건립됐다. 대장경뿐만 아니라 판전 또한 처음부터 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한 전각으로 지어졌다. 판전은 창건 당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부처님 가피일까. 이 장경판전은 해인사에서 있었던 7번의 큰불과 한국전쟁 당시의 폭격 위기 등이 비비켜갔다. 장경판전은 경판의 변형을 막기 위한 과학적 설계로 창의 크기를 다르게 해 공기 순환을 돕고, 숯과 소금, 횟가루, 모래, 찰흙 등으로 지반을 다져 습기와 해충을 막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고려 현종 당시 초조대장경 목판을 교체하기 위해 새겨졌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모아 몽골과 거란족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대장경은 남해서 제작된 뒤 1318년 강화 선원사로 옮겨졌다가 고려말 1398년 현재의 장경판전으로 옮겼다고 하며 이운은 왕이 직접 감독하여 한강에서부터 진행됐다고 한다.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해인사는 올해 6월 19일부터 팔만대장경 국민개방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대장경을 보고 선조들의 지혜을 얻고 화합하게 하는 국민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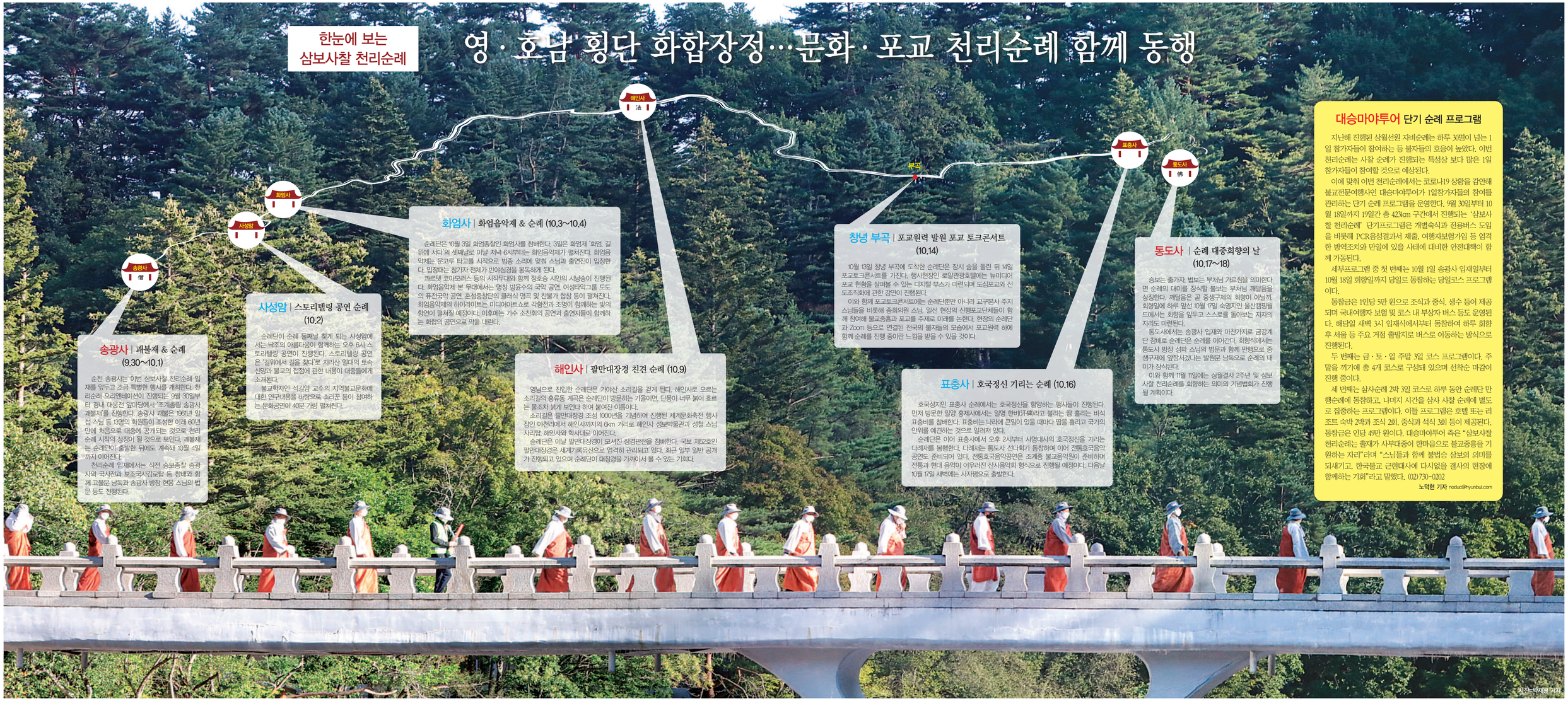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팔만대장경 인경 모습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영·호남 횡단 화합장정…문화·포교 천리순례 함께 동행



송광사 | 괘불재 & 순례 (9.30~10.1)

순천 송광사는 0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를 앞두고 조금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천리순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9월 30일부터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총림 송광사 괘불재'를 진행한다. 송광사 괘불은 '496년 일심 스님 등 13명의 화원들이 조성한 이래 69년만에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천리순례 시작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괘불재는 순례단이 출발한 뒤에도 계속돼 10월 4일까지 이어진다.

천리순례 입재에서는 식전 송보종찰 송광사의 국사전과 보조국사감로탑 등 참배와 함께 고불문 낭독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등도 진행된다.

사성암 | 스토리텔링 공연 순례 (10.2)

순례단이 순례 둘째날 찾게 되는 사성암에서는 낙조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오후 6시 스토리텔링 공연이 진행된다. 스토리텔링 공연은 '길위에서 길을 찾다'로 지리산 일대의 토속신앙과 불교의 접점에 관한 내용이 대중들에게 소개된다.

불교학자인 석길암 교수의 지역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소리꾼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이 40분 가량 펼쳐진다.

화엄사 | 화엄음악제 & 순례 (10.3~10.4)

순례단은 10월 3일 화엄종찰인 화엄사를 참배한다. 3일은 화엄제 '화엄, 길 위에 서다'의 셋째날로 이날 저녁 6시부터는 화엄음악제가 펼쳐진다. 화엄음악제는 문고루 타고를 시작으로 범종 소리에 맞춰 스님과 출연진이 입장한다. 입장때는 참가자 전체가 반야심경을 봉독하게 된다.

쿼르텟 코이퍼러스 등의 시작무대와 함께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이 진행된다. 화엄음악제 본 무대에서는 명창 방윤수의 국악 공연, 여성더악그룹 도도의 퓨전국악 공연, 조계중창단의 클래식 명곡 및 찬불가 합창 등이 펼쳐진다. 화엄음악제의 하이라이트는 미디어아트쇼로 각황전과 조명이 함께하는 빛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가수 조찬희의 공연과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해인사 | 팔만대장경 친견 순례 (10.9)

영남으로 진입한 순례단은 가야산 소리길을 걷게 된다. 해인사로 오르는 소리길의 홍류동 계곡은 순례단이 방문하는 가을이면, 단풍이 너무 붉어 흐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리길은 팔만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세계문화축전 행사장인 이천리에서 해인사까지의 8km 거리로 해인사 성보박물관과 성철 스님 사리탑, 해인사와 학사대로 이어진다.

순례단은 이날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장경판전을 참배한다.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일반 공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례단이 대장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다.

창녕 부곡 | 포교원력 발원 포교 토크콘서트 (10.14)

10월 13일 창녕 부곡에 도착한 순례단은 잠시 숨을 돌린 뒤 14일 포교토크콘서트를 가진다. 행사현장인 로얄관광호텔에는 뉴미디어 포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부스가 마련되며 도심포교와 신도조직화에 관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교토크콘서트에는 순례단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종회의원 스님, 일선 현장의 신행포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미래를 논한다. 현장의 순례단과 Zoom 등으로 연결된 전국의 불자들의 모습에서 포교원력 하에 함께 순례를 진행 중이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충사 | 호국정신 기리는 순례 (10.16)

호국성지인 표충사 순례에서는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행사들이 진행된다. 먼저 방문한 밀양 홍제사에서는 일명 한비汗碑라고 불리는 땀 흘리는 비석 표충비를 참배한다. 표충비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고 국가의 안위를 예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례단은 이어 표충사에서 오후 2시부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한다. 다례재는 통도사 산드림회가 동참하며 이어 전통호국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전통호국음악공연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준비하며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산사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날 10월 17일 새벽에는 사자평으로 출발한다.

통도사 | 순례 대중회향의 날 (10.17~18)

승보는 출가자,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을 의미한다면 순례의 대미를 장식할 불보는 부처님 깨달음을 상징한다. 깨달음은 곧 중생구제의 회향이 아닐까. 회향일에 하루 일선 10월 17일 숙영지인 울산캠핑월드에서는 회향을 앞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자의 자리도 마련된다.

통도사에서는 송광사 입재와 마찬가지로 금강계단 참배로 순례단은 순례를 이어간다. 회향식에서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과 함께 만행으로 중생구제에 앞장서겠다는 발원문 낭독으로 순례의 대미가 장식된다.

이와 함께 11월 11일에는 상월결사 2주년 및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향하는 의미의 기념법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승마야투어 단기 순례 프로그램

지난해 진행된 상월선원 자비순례는 하루 30명이 넘는 1일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등 불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번 천리순례는 사찰 순례가 진행되는 특성상 보다 많은 1일 참가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이번 천리순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교전문여행사인 대승마야투어가 1일참가자들의 참여를 관리하는 단기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 총 423km 구간에서 진행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단기프로그램은 개별숙식과 전용버스 도입을 비롯해 PCR음성결과서 제출, 여행자보험가입 등 엄격한 방역조치와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함께 가동된다.

세부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10월 1일 송광사 입재일부터 10월 18일 회향일까지 당일로 동참하는 당일코스 프로그램이다.

동참금은 1인당 5만 원으로 조식과 중식, 생수 등이 제공되며 국내여행자 보험 및 코스 내 부상자 버스 등도 운영된다. 해당일 새벽 3시 입재식에서부터 동참하여 하루 희향 후 서울 등 주요 거점 출발지로 버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는 금·토·일 주말 3일 코스 프로그램이다. 주말을 끼기에 총 4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 진행 중이다.

세 번째는 삼사순례 2박 3일 코스로 하루 동안 순례단 만행순례에 동참하고, 나머지 시간을 삼사 사찰 순례에 별도로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 2박과 조식 2회, 중식과 석식 3회 등이 제공된다. 동참금은 인당 49만 원이다. 대승마야투어 측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출재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자리"라며 "스님들과 함께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다시없을 결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02)730-020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僧寶宗刹 송광사

송광사는 불교의 세가지 보배인 부처님(佛), 부처님가르침(法), 부처님가르침을 따르는 제자(僧) 중 승보(僧寶)와 관련된 승보사찰이다.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길상사(吉祥寺)로 작은 규모의 절이었지만 고려시대 중창되고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이곳에서 펼치고 고려 희종이 길상사를 수선사(修禪社)로, 송광산을 조계산(曹溪山)으로 개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후 보조 국사의 법맥을 진각국사(眞覺國師)가 이어받아 중창한 때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하면서 승보사찰의 지위를 굳혔다.

대웅보전 뒤에 자리한 수선사와 국사전은 승보사찰로서의 핵심 전각이다. 국보 56호 국사전은 고려 공민왕 때 건립됐으며, 16국사의 진영이 봉안돼 있다.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16국사 진영 대부분은 1995년에 도난당했으나 2018년 복원됐다. 이들 진영은 매년 보조국사 종재일에만 일반에게 개방된다.

송광사는 승보사찰 답게 사찰의 가장 위쪽 상대에 스님들의 수행처가 있다. 이를 수선(修禪) 구역이라 하는데 결사의 정신이 서려있는 곳이다.

송광사는 승보사찰 답게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함께 따르고자 재가자 수련도 활성화 되어 있다. 1971년 구산 스님이 구상하고 법정 스님이 초대수련원장을 맡아 스님들의 수행을 본떠서 만든 재가자여름수련회는 재가자 교육 개념조차 없었던 당시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래들어 국민들의 명상과 불교문화 유산 체험의 기회가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원류를 송광사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송광사는 목조문화재가 많으며, 경내에는 약 80여 동의 건물과 부도·비석 등이 있다. 16국사의 영정을 봉안하는 국사전 등의 국보 4점을 비롯하여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 보물 13점, 천연기념물인 쌍향수 등 국가문화재 17점과 정혜국사사리함 등 지방문화재 10점을 포함, 모두 27점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무엇보다 송광사는 새벽 예불의 은은한 목탁 소리, 낭랑한 독경, 찬란한 고참의 승맥을 이어가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그 자체로 성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저녁예불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華嚴宗刹 화엄사

사찰은 다양한 신앙과 역사를 품고 있다. 불법승 삼보의 삼보사찰과 함께 천리순례 과정에 있는 화엄사는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화엄종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화엄사가 불타고 다시 만든 사적기에 따르면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연기(緣起) 조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화엄사에는 백제 법왕 때인 599년에는 3000여 스님이 머물며 화엄사상을 꽃피웠다. 643년(선덕여왕 12년)에는 자장율사가 증축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시는 석존사리탑(釋尊舍利塔)과 7층탑 등을 세웠다.

〈봉성지(鳳城志)〉에 따르면,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아 석판에 〈화엄경 80권〉을 새겨 절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때 의상대사가 황금장육불상을 모신 곳이 지금의 각황전이다.

신라 경덕왕(742~764) 때 화엄사는 가장 융성한 사세를 지녔는데 당시 8원 81암자로 화엄세계를 드러냈다. 신라 말기 헌강왕(875)때 도선국사가 동오층석탑, 서오층석탑을 조성하고 화엄사 중흥조가 되며 화엄종찰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오랜 역사로 인해 화엄사는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중요한 전각 중 하나인 각황전은 국보 제67호로 조선 중후기인 숙종 때 지어진 건물이지만 숭유억불의 기조 속에서도 임금이 정사를 보던 근정전 다음으로 큰 규모의 법당이다. 본래 장육전이 소실되어 복원하면서 숙종이 현판을 〈각황전〉이라 사액했다.

각황전 앞에는 거대한 석등이 있는데, 국보 제12호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황전 뒤로 돌아가면 탑전이 나오며 이곳에 세워진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은 이형탑 가운데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탑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영산회괘불탱도, 동오층 석탑, 서오층 석탑, 대웅전, 원통전 앞 사자탑, 화엄석경, 서오층 석탑 사리장엄구, 대웅전 삼신불탱,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등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다.

화엄사는 천년고찰로 그동안 화마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이때마다 대중들의 마음이 모여 사찰을 복원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로도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상월결사 순례, 21세기형 구법행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부처님 걸으면서 곳곳에 전법
佛滅뒤 성지화 이뤄지며 순례
'구법'순례, 불교 발전 견인해
근대 이후에는 관광과 결합돼
걸으며 신앙처 순례 '상월결사'
오롯이 순례의 기본에 충실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순례(巡禮)는 고금과 종교를 막론하고 지속된 행위다.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고, 길 위에서 전법을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위도 크게 보면 순례에 가깝다.

하지만 종교적 순례가 정확하게 시작되는 시점은 교조가 부재하면서다. 교조가 살아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교조를 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교조가 부재하게 되면 교단 구성원들은 교조의 가르침을 회상하고 신앙심을 고양시킬 행위를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산물이 '성지순례' 의 형태로 나타났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정각을 이룬 부다가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열반처 쿠시나가라를 4대 성지로 삼고 있다. 여기에다 스라바스티, 상카사, 라즈기르, 바이슈리 등을 더해 8대 성지로 꼽고 이곳들을 기리고 있다.

〈대반열반경〉에는 부처님 4대 성지에 대한 순례를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가 설해져 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가 있다. 첫째, 여기에서 여래가 태어나셨다. 둘째, 여기에서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셋째, 여기에서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넷째, 여기에서 여래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열반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 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이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은 이 네 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고영섭 교수는 최근 〈문 · 사 · 철〉에 발표한 논문에서 "네 곳의 성지 순례는 여래가 태어난 곳, 정등각을 깨친 곳,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신 곳, 무여열반의 요소로 열반하신 곳"이라며 "해서 이곳은 여래의 탄생, 깨침, 전법륜, 입멸의 도정은 대승불교의 신행과 수행의 기본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과 상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일생을 회상하며 기리는 순례뿐만 아니라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고, 법을 구하기 위한 구법행도 이뤄졌다.

대표적인 것인 실크로드를 통한 구법승들의 구법순례다. 오로지 법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법승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을 나섰다. 2~8세기 중국을 통해 인도로 간 구법승은 약 131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한국의 구법승은 11명이다.

이중 가장 유명한 구법승은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다. 중국 고전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현장 스님은 국외 여행을 금지한 국법을 어기고 629년 인도로 떠난다. 고창국과 천산산맥을 넘어 중인도 나란다 대학에 이르게 된다. 그는 5년을 머물면서 그토록 얻고자 했던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유식의 교학을 배우게 된다. 또 각지에 구법과 불적 순례의 여행을 계속해서 다수의 불전을 얻어서 귀로에 나섰고, 17년만인 645년에 이번에는 환영을 받으면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현장 스님은 구법 여정을 통해 불사리 150개, 불상 8체, 경전 520권 657부를 중국에 전했다.

이처럼 목숨을 걸었던 구법승들의 구법 순례는 동아시아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단초가 됐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내에서 성지순례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효, 의상 스님이 낙산사 관음성지 순례를 했다고 전해지는 등 한국불교 순례의 역사는 길다. 고려시대에는 금강산으로 기도 순례를 떠난 회정 스님이 송라암에서 관음기도를 드리다가 3년 기도 끝에 문수 · 보현 · 관세음보살을 모두 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경우 왕이 되기 전 전국 명산을 기도 순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근대 이후 교통이 발전하면서 현대의 성지순례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970년대까지는 일반 서민들에게 자신의 일상 생활공간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숙박의 해결이라는 사회적인 여건의 발달이 성지순례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관광이 지원되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까지도 일상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교통의 발달이 신도들을 성지까지 데려다 줬다면 성지에서의 숙박의 해결은 신도들이 그만큼 쉽게 순례를 다닐 수 있게 해줬다. "사회 현실과 맞물리면서 성지가 된 사찰은 신앙과 관광을 겸하는 추세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효원)"이다.

사찰이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서울 불광사가 성지순례 신도 신행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전국 사찰로 전해졌다. 2006년에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첫 시작을 알렸고 2015년 회향했다. 이들 모두 교통과 숙박이 용이해지면서, 순례에 '관광' 의 요소가 결합된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난극복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와 올해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삼보사찰 순례는 '길을 걸으며 수행하고 전법하는' 순례의 기본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순례 관광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지난해 발표한 '수행과 전법의 길로서 상월결사' 를 통해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부처님이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자비순례가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걷기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는 중요한 포교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내포한다"면서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상월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의 진정한 구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는 불교의 기본인 삼보에 대한 예경과 이를 통한 불교중흥의 발원이 담겨 의미를 더한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지난 8월 열린 기자회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발원한 것은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특히 승보사찰 송광사를 출발지로 삼은 이유는 승보의 의미를 훼손치 않기 위함이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반도 남부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산과 산을 이어가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의 천리순례를 통해 자기수행과 대중화합의 새 불교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순례단의 발원이 한국불교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護國聖地 표충사

표충사(表忠寺)는 밀양 재약산(載藥山)에 자리한 천년고찰로 신라 원효대사가 무열왕 원년(654년) 죽림사(竹林寺)를 창건하며 가람의 역사가 시작됐다.

흥덕왕 4년(829) 셋째 왕자가 몹쓸 병을 얻어 전국의 명산과 명의를 찾던 중 이곳의 약수를 먹고 병이 낫게 되자 탑을 세우고 약수 이름을 영정약수라 불렀고 이때 산 이름이 재약산(載藥山), 사찰 이름이 영정사(靈井寺)로 불렸다.

신라 때는 보우국사가, 고려 때는 해린국사가 표충사에 머물렀는데, 특히 일연 스님이 표충사에서 〈삼국유사〉를 탈고한 것이 유명하다.

표충사는 조선 헌종 5년(1839) 영축산 백하암에 있던 사명대사의 사당을 모시면서 크게 중창됐다. 사명대사는 무안 출신으로 왜란 이후 영축산 자락으로 갔다. 사명대사를 모신 사당을 1839년 사명대사 8세손인 천유대사가 좀 더 넓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터만 남은 영정사 자리로 이전하고 이름도 표충사로 변경했다.

사당을 모시다보니 다른 사찰과 달리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와 유교가 통합되어 있는 한국불교의 통불교 면모를 함께 볼 수 있다.

표충사는 일제 강점기 화마로 소실된 이후 다시 중창하는 과정에서 사당영역과 법당영역의 구역이 나뉘었는데 표충사의 사당에는 서산 · 사명 · 기허 대사의 호국 삼승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사명대사 유물관도 있다. 사명대사 유물관에는 사명대사 유품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선조가 사명대사에게 하사한 금란가사와 장삼, 금제 수저 패도를 비롯하여 대사가 평소 원불로 모셨다는 목조불상과 염주 등이다.

표충사에는 국보 75호인 청동함은향완이 보존돼 있으며, 이 향환은 아름다운 선과 섬세한 문양조각미에 은입사로 다듬어진 동양에서 하나 뿐인 국보다. 또 보물 제467호 삼층석가여래 진신사리탑은 영정사를 창건한 황면 선사가 인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사리를 봉안하고 세웠다는 탑이다. 삼층석탑 왼편에는 효봉 스님이 주석하다 입적한 서래각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자평 아래의 표충사

“순례길 발걸음,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순례길 조성 일조 포교 마케팅 기대”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천리순례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함께하고 있다. 포교원은 10월 14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부곡에서 포교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삼보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신행문화로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지난 자비순례에 순례단원으로 동참했다. 포교원장으로서 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순례에 대한 마음은 직접 참여한 이들에 못지 않다.

스님은 “걷는 것이 쉽지 않지만, 뒤돌아 보면 침묵 속에서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고 불교가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동참하는 분들도 신심을 내겠지만 준비하는 이들과 지켜보는 이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격려했다.

취임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 새해 포교종책을 준비중인 스님은 순례문화 활성화 또한 포교원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시대변화 속 새 포교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끊임없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이번 천리순례길뿐만 아니라 전국 본사와 많이 알려진 사찰을 잇는 순례길 형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천리순례 후 지장신앙, 미타신앙, 약사신앙, 관음신앙 등 특색있는 순례길이 곳곳에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상생의 마음으로 순례 공덕 회향”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천리순례의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는 순례 이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도 하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순례 이후 새로운 수행문화 형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문 스님은 “스님들은 안거가 끝나면 만행을 나선다. 이는 수행의 공덕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의미”라며 “찾아가는 불교, 움직이는 불교를 외치는 천리순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새로운 수행문화 형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단순한 걷기가 아닌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일깨우고 그 가르침을 새기는 행선”이라며 “불교는 이제 조용히 머무르는 수행, 찾아와야만 하는 사찰 등의 면면을 일신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는 한국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례단이 통도사에서 회향하는 10월 18일 바로 전날인 10월 17일은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회향일이기도 하다.

통도사는 ‘상생’을 주제로 개산대재를 열 만큼 통도사의 가치와 역사적 전통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문 스님은 “2년 여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지쳐있는 지금 불교는 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단의 원력과 상생을 위한 통도사 대중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국민 코로나 아픔 순례가 희망 치료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신행으로, 불자들에게는 삼보를 향한 신심과 귀의를 전하고 국민들에게는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아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불교계, 그리고 불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넘어, 국민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치유하는 법석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무엇보다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법보종찰이다. 고암 스님과 성철 스님, 혜암 스님 등 시대의 선지식들을 비롯해 수많은 수행자들이 정진했던 대표적인 수행도량이기도 하다.

현응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내 안의 불 · 법 · 승 삼보를 찾아나서는 길”이라며 “어찌보면 한국불교는 그동안 불법승 삼보를 향한 예경이 너무 당연해 되레 소홀히 여겨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삼보사찰은 한국불교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수행과 문화의 전통을 상징한다”며 “때문에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써 한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9일 해인사에 당도해 법보의 상징인 팔만대장경판이 봉안된 장경판전을 참배한다. 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신앙심을 고취하는 여법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 **송지희 기자**

“괘불재도 함께 봉행 ‘천리순례’ 의미 배가”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 · 법 · 승 삼보의 귀중함을 다시 인식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같은 의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승보종찰 송광사는 60년만에 괘불재 봉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취지를 되짚으며 벅찬 기대감을 전했다. 승보종찰 송광사는 삼보사찰의 하나이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천리순례의 시작점이다. 때문에 천리순례를 계기로 송광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깊다.

자공 스님은 “순례대중들이 불편함 없이 순례의 참의미를 고스란히 느끼고 순례의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원하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괘불재 역시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광사 괘불재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거행된다. 이날 공개되는 송광사 괘불은 1961년 화승 일섭 스님과 13명의 화원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괘불재를 통해 60년만에 처음으로 대중과 만난다. 60년간 잠자고 있던 괘불이 다시금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서,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으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자공 스님은 “올해를 시작으로 송광사 괘불재를 정례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천리순례 입재와 함께 하는 괘불재인만큼,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불자 자긍심 고취의 장 확신”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자비순례에 이어 이번 천리순례 일정을 함께한다. 주 신도회장은 재가불자들을 대표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주 신도회장은 “지난 해 자비순례에 이어 금번 결사는 포교와 전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삼보사찰 천리 순례인 만큼 저 또한 전국 재가 불자들을 대표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시대와 중흥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신도회장은 불자들에게 “신도의 가장 큰 역할은 삼보를 호지하며 조계종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승보종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보사찰 해인사를 지나 불보사찰 통도사로 회향하는 금번 결사는 불 · 법 · 승 삼보의 존귀함을 새롭게 되새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자비순례 당시 500km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중들의 간절함을 느꼈다는 주 신도회장. 그는 “상월선원 회주이신 자승 스님으로부터 ‘사부대중이 함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불교중흥의 길’이라는 명료한 가르침을 받아, 신도들의 역할과 신도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 신도회장은 순례 이후에도 상월결사에 대한 끊임없는 불자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주 신도회장은 “순례는 결국 포교와 전법의 힘찬 발걸음으로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며 “재가불자들이 역량을 모아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시는 정진 대중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이 정진수행으로 무사히 회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움직이는 불교,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를 기치로 한 국불교 중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修道聖地 사성암



사성암 유리광전

섬진강을 굽어보는 해발 500m 바위산 오산(鰲山). 이 산의 가파른 절벽에는 한국불교사의 고승으로 손꼽히는 4명의 스님이 수도한 ‘사성암’(四聖庵)이 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등 고승들이 거쳐간 사성암은 수도정진하는 이들에겐 성지와도 다름없다.

사성암은 역사가 매우 오래된 암자로 그 연원은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에서 온 고승 연기조사가 처음 개창하였다고 한다. 연기조사는 지리산 근처에 많은 절들을 개창하였는데, 원래 이름은 오산암이었다.

명승 제111호로 지정된 사성암은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구례 오산은 〈봉성지〉에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산 사성암 일원은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등 7개면과 지리산 연봉들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성암에서 좌선을 하면 지리산의 정기를 한 곳에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절벽가에 위치한 사성암에는 바위틈이 군데 군데 있는데, 실제로 도선국사가 참선을 했다는 도선굴도 있다.

본사인 화엄사와 마찬가지로 사성암도 화엄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화엄세계의 53불과 500나한이 함께 모셔진 나한전이 그것을 입증한다. 53불은 조선후기 조성됐는데, 33불만 남아 있고, 20불은 현대에 재조성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순례를 행하는 순례자들에게 깨달음을 증득한 나한들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사성암 유리광전에 모셔진 마애약사여래불은 높이 3.9m 크기에, 음각으로 새겨진 마애불로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바위에 새겼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뭇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약사여래기도로 기도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성암 주변에는 12비경이라는 명소가 전하는데 진각국사가 참선했다는 좌선대, 우선대를 비롯하여 섬진강과 지리산을 살필 수 있는 절경과 해질녘에 노을이 아름다운 낙조대 등도 정취를 더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